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행정학과 학생 선발 보완: 텍스트 네트워크 기반 학생부와 면접에서 Public Service Motivation 검토사항 분석*

조기웅**

〈目 次〉

- | | |
|----------------------------|----------------------------|
| I. 논의의 배경 | IV. 학종에서 PSM을 보기 위한 학생부 및 |
| II.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행정학 교육과 | 면접 검토사항 분석결과 |
| 학종의 보완을 위한 PSM과 선발 | V. 결론 및 논의: 다른 공공영역 인재 선발로 |
| III. 데이터 및 분석 | 확장을 위해 |

〈요 약〉

사회변화에 맞춰 대학생선발을 내용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함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중시되고 입학사정관과 일부 학과 교수들이 선발과정에 참여하여 수많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학과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일환(一環)으로 본 연구는 학종으로 행정학과 신입생 선발시, 행정학의 Public Service Motivation(공공봉사동기: PSM)에 기반하여 학생부와 면접에서 검토사항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 입학사정관, 교수 대상 개방형 심층 설문자료를 텍스트 네트워크(Text Network)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학종에서 PSM 기반 선발이 기존 역량중심 선발에 적용가능하여, 분석 결과 학생부 심사에서는 주로 비교과 활동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사회과목 및 교과학 습발달상황, 단체활동 전반 및 봉사 등이 검토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학생부 기반하여 면접에서는 학생부 심사보다 다양한 사항이 제시되어, 학교와 학급 활동, 경험 등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다. 그 외 PSM 각 차원별 검토사항의 특징, 한계 및 예시 면접 문항(표 19

* 본 연구는 특정 기관, 학교, 학과, 개인 등의 공식입장이나 사례가 아닌 연구결과임을 명시합니다. 이 논문은 202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24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지방정부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2024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한국자치행정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국가정책연구소 2024년 동계학술대회, 2025년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고민할 때 네트워크 방법을 추천해주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연준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kiwoongc@jbnu.ac.kr/kiwoongc@gmail.com/kc2632@caa.columbia.edu)
논문접수일(2025.9.8), 수정일(2025.12.8), 게재확정일(2025.12.10)

참고) 등을 제시하면서 차후 연구, 이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과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고려 사항 중에서 PSM을 하나의 보완적 예시로서 제시하여, PSM의 연구 영역과 방법론 적용을 확대하였다. 이 연구는 앞으로 행정학과는 물론 다른 학과 및 영역에서 전공별 주요원리(principle)따라 학생선발을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행정학 교육,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면접,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텍스트 네트워크】

I. 논의의 배경

1. 들어가며: 인재상과 공무원 위상 변화 및 행정학 교육연구 부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선발도 현재 역량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암기 위주 교육이 주가 되었다면, 산업사회에서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 중시된다(차정민, 2022). 최근 4차산업혁명을 거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적 사고 및 다른 영역의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도 중시하는 추세이다(권오현, 2022; 차정민, 2022). 따라서 과거에 중시되던 개인의 인품보다는, 역량이 중요시되고, 수업도 역량¹⁾ 기반으로 바뀌었다(권오현, 2022). 대학도 신입생 선발방법도 변화시키고 다양한 입시전형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출산율 및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 등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Cho & Park, 2023). IMF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공무원의 인기는 증가하였지만, 이후 최저임금 상승, 사회변화가 일어났다. 더불어 가치관 변화로 직장의 일을 가정이나 개인의 삶보다 우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며, 탈권위적이고, 개인중심적인, M세대와 Z세대는 물론 스마트폰 및 비대면 접촉에 친숙한 알파(Alpha) 세대가 사회와 대학의 일원이 되고 있다(김태우·조기웅 2021; 최낙혁 외, 2024). 2020년 COVID-19 이후 이는 더 가속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최근 공무원 인기 감소로 시험 경쟁률이 감소하고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정민승·나주예, 2022).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력의 투입과 선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별 특징에 따라

1) 핵심역량은 대학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박성미, 2011; 이슬기 외, 2024), 구성요소는 연구자와 개발 맥락에 따라 다르다(이슬기 외, 2024). 기존에 역량으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장교식 외, 2018) 등을 제시하였으나, '인성' 평가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역량을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으로 재편(임진택 외, 2022; 최상은, 2024)되었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권오현, 2025). 본 연구는 이 3가지 역량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그 전공에 맞는 학생선발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PSM 연구와 확산과 함께 PSM이 공무원 선발에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고, 일부 다른 학과 교수들이 학종을 통한 학생 선발에 투입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행정학과²⁾에 맞는 인재 선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2. 입시제도의 변화: 입시주체의 역할 변화와 학종의 도입

1) 입시제도 및 주체 변화

행정학에서 주요 주체가 과거 시장에서 1929년 대공황 이후 국가로, 그리고 1970년 말 세계적인 오일쇼크(Oil Shock) 이후로는 공동체로 변화됨(조기웅, 2020)과 같이, 입시에서도 주요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요평가³⁾에서 대학과 국가 중심의 대학별고사, 국가고사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일선 고등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로 중심으로 상당히 이동하였다(정명채, 2022) (<표 1> 참고). 이는 학종의 등장에 이바지하였다.

〈표 1〉 시기별 대학입시제도 및 주체의 변화(강경래, 2022; 이천중, 2019 참고하여 저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표로 정리)

시기	1기: 1945년~1980년	2기: 1981년~1993년	3기: 1994년~현재	
주요시험	대학별 (본)고사	대학입학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타평가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대학예비고사, 내신 등	내신, 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 내신, 학생부, 논술, 추천서, 면접 등(~2007년)	입학사정관, 학생부 강조(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등 4가지 전형
주요주체	대학+국가	국가+대학		국가+대학+고등학교

특히 국가고사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지되지만,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암기 기반 선택형 검사의 한계, 대학 자율성 제한 및 대학 입학전형의 획일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정명채, 202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1994년 이후 3기[수능 시기(1994년~현재)]가 시작되었다. 이후 선택형 검사의 개선과 대학전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수능에 기반하지만 2008년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비중이 확대된다.

2) 이 글에서 행정학과는 기존의 행정학과는 물론 행정학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하는 학과(예: 정책학과, 공공인재학부, 공공행정학과, 글로벌행정학전공, 정치행정학전공, 도시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등)를 의미한다.

3) 3가지 주요평가는 대학별고사(본고사, 면접, 실기 등), 국가고사(예비고사, 학력고사, 대수능 등), 학생부(교과, 비교과 등)가 있다(정명채, 2022).

따라서 3기 수능시기는 2008년⁴⁾ 전후로 나누어져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5년 “학생 부종합전형”(학종)으로 이름이 변경된다(문승관, 2022).

2) 결과중심 평가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학종의 특성과 발전

입학사정관제(이후 학종으로 변화)의 도입과 학생부의 강화는 사회적 변화가 입시제도에 반영됨을 보여준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입시에서는 내신은 물론(강경래, 2022) 2007년도 까지 논술 및 대학별고사 등과 수능이 공존하였다. 2008년도 이후부터 입시에서 대학별고사는 거의 제외되고, 학생부가 강조된다(강경래, 2022; 성현석, 2006; 송형석, 2006; 이천중, 2019). 특히 고등학교 학생부의 강조(이천중, 2019)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고등학교가 입시의 주요 주체로 부각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유도되고 입학사정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생부와 여러 가지 경험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학종의 원조가 되었다(이천중, 2019).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도의 문제가 대두되고 2013년 10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나오게 되어 대입전형에서 수시는 학생부종합과 학생 부교과 그리고 논술, 실기 위주의 4가지 전형으로, 정시는 수능이나 실기 위주로 하여 2가지로 개편된다(이천중, 2019; <Appendix 표 1, 2> 참고). 공인어학성적 및 교외수상 등 학교 외부의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부 중심의 평가로 변하고(이천중, 2019), 입학사정관 전형이 2015년 학종으로 변경된다(문승관, 2022).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종의 도입은 우리나라 대입전형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로 뽑을 수 있다(박찬호·이진희, 2018; 허정은·박창언, 2019).

학종은 학생들 입장에서 한마디로 ‘평가자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로 요약될 수 있다. 교사들이 학생의 학교 성적, 활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의 학교 활동 전반에 걸쳐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학사정관과 면접관 등이 서류(학생부 중심)와 면접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메타(meta) 평가를 하는 것이다(참조 <Appendix 표 4>). 입시제도의 특성상 다른 입학전형(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등 상대적으로 정량적인 전형)과 달리 주관적, 종합적, 비정량적이지만, 학종을 통해 기존의 내신, 교과성적 및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능력은 물론 학생의 가능성과 소질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판단하여, 대학에 맞는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정명채, 2022). 입시 중심 교육에서 교육이 입시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방향성을 부여하여, 교육과정과 대입이 더 이상 분리(결과중심의 평가)되지 않고 대입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과정 중심의 평가) 학교의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입학사정관제(入學査定官制)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4736> (2025년 3월 2일 접근).

수업방식이 주입식, 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수업방식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강경래, 2022; 윤상형, 2022; 차정민, 2022). 결국 개인과 함께 학교교육과정도 평가하는 평가이기도 하다(차정민, 2022).

학종은 학교마다 전형명이 다소 다른 경우⁵⁾가 있으나 대부분 서류(학생부)와 면접을 포함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종의 입시에서 비중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도 16.1%에서 2021학년도에는 24.9%까지 늘었다가(정명채, 2022)⁶⁾ 2024학년도에는 23.1% 정도로 줄었지만, 2025학년도 23.2%와 2026학년도에는 23.6%로 다시 증가⁷⁾하고 있다.

3. 연구 주제, 필요성 및 방향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된 행정학과에서 학생 선발시 “학종에서 PSM에 기반하여 학생부 심사와 면접에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입시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부터 간략하나 세심히 살펴본다. 이후 행정학 교육 현황, 학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전문가 의견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하였다. 분석결과 PSM에 근거하여 행정학과 특성에 맞는 학생을 학종에서 선발시 학생부와 면접에서 검토사항을 제시하여 학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의 공헌, 한계 및 함의를 도출하였다.

II.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행정학 교육과 학종의 보완을 위한 PSM과 선발

1. 행정학 교육 연구의 현황

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에 행정학을 포함한 대부분 학문이 별도로 각자 학문의

-
- 5) 학종 전형명의 예로서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 활동우수형, ○사람, ○○인재 등(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2024)이 있다.
- 6) 하지만 학교 수준 차이에서 오는 불이익과, 내신 성적 부풀리기 및 평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사람들의 신뢰가 낮아지는 한편, 2019년 11월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2020년 이후 정시 비중이 확대되기도 하였다(강경래, 2022; 정명채, 2022).
- 7) 2026 시행계획 분석 - 수준별, 유형별 <https://www.nextpl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5>
[고3]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른 입시 전략 <https://www.ebsi.co.kr/ebs/ent/enta/retrieveEntNewsView.ebs?bbsCd=B011&datNo=142864> (2025년 4월 22일 접근)

교육분야⁸⁾가 있음에도 교육학 외에 각 학문분야 교육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행정학은 그동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전반적인 행정학 교육에 대한 고민과 연구(예: 박종민, 2012; 정정길·이달곤, 2000)는 물론, 처리 및 산출 분야도 한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 없이 산발적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특히 투입, 즉 학생들의 선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다(〈표 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는 행정학과 학생 선발에 대한 연구가 교육행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학 교육 연구가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표 2〉 인사행정의 활동국면(오석홍, 2016)으로 본 한국 행정학 교육 연구 현황[조기웅(2020)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표로 정리]

활동국면	국내 행정학 교육 연구 현황과 내용	비고
투입	- 없음 -	연구 매우 부족
처리	개론서 연구(김광웅, 1979; 김판석, 1995; 윤재풍, 1987; 최성락·이혜영, 2009), 교과과정(조경호, 2005; 정연택·이주실, 2008), 교육현황 및 교과목(제갈욱 외, 2001), 교육의 실용성과 경쟁력(이병량, 2010), 대학원 양적 방법론 교육(손호성·배광빈, 2019), 행정(학) 역사 교육(조기웅, 2020), 행정학 교과목(강인재, 2020), 전공선택동기 및 만족도(김상묵·노종호, 2024), 공직선택동기(고길곤·박치성, 2010)	연구 부족 및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 연구 필요
산출	교육수요(김주환, 2001), 취업과 후속세대 양성 및 교수 충원(권해수, 2009), 직무일치 취업과 직장만족도(김상묵·노종호, 2024)	연구 부족 및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 연구 필요

2. 왜 학종인가?: 학종의 성과와 한계

행정학과에서 학생 선발시 PSM을 보는 것은 입시제도의 4가지 전형 중(〈Appendix 표 1, 2〉 참조)에서 학종에서 가장 적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학에서 학종 연구의 논의에 앞서 학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한계를 극복을 위해 PSM을 통한 학종의 보완과 그 검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학종의 성과

학종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교사의 학생평가를 대학이 메타평가(권오현, 2022)하여 평가를 다원화, 민주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정 부분 공헌하였다(박찬

8) 행정교육, 정책교육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복지, 법학, 공학, 의학, 간호, 약학교육 등이 있다(학술연구분야분류 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2022년 3월 29일 접근).

호·이진희, 2018).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내고,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교 수업과 교육으로 학생들의 대입 준비가 가능하게 한다(권오현, 2022). 과거의 전문성이나 내용보다 학종에서는 역량에 기반하여(권오현, 2022) 입학사정관이 대학 신입생 선발시 지원자의 역량을 학업역량과 진로역량 및 공동체역량 등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순기능이 있다(정명채, 2022; 최상은, 2024). 그 결과 입학생이 지역, 학교, 특성 등 측면에서 다양화되고(권오현, 2022), 지역 안배가 개선되어 읍면지역 학생이 수능보다 학종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강경래, 2022)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학생부가 대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에 관련이 깊다고 본 것을 감안(이경희, 2010; 김준엽 외, 2013; 이재원, 2025a)하면 학종은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학생의 대학에서 성취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비교적 적절한 입학전형이다. 따라서 학종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⁹⁾ 아래와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 학종의 한계

학종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과연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¹⁰⁾되고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평가의 모호성(임진택, 2023; 강경래, 2022; 정명채, 2022; 차정민, 2022)과 공정성 문제(유하라, 2023)이다. 일반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가지고 있고(Noe, et al., 2010), 이는 학종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평가자, 학교, 학과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일관적, 정량적 기준이 없다(박찬호·이진희, 2018). 대학에서 제시하는 역량중심 평가(임진택, 2023)도 불명확하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으며(〈Appendix 표 4〉 참고) 학과별로 어떻게 어떤 항목을

9)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및 교사간 학생부 기록 격차가 감소하고,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완성됨은 물론, 고등학교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고, 수능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혹은 자격고사화되어야 한다(윤상형, 2022). 또한 학종을 위한 입학사정관 인력 확충과 그들의 역량을 강화되는 선결과제가 필요하다(윤상형, 2022).

10)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주요 과목을 이수하니 2, 3학년이 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거나(강경래, 2022; 허정은·박창언 2019) 1학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활동(수상실적 등)을 몰아주는(박찬호·이진희, 2018) 낙인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어떤 활동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교육 촉진(강경래, 2022) 외에도,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영향 이외 다른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거나(강경래, 2022; 최상은, 2022; 허정은·박창언 2019), 대학이 특정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반영(최상은, 2022)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학종이 상류층에게 유리하다는 여론조사(강경래, 2022)와 수도권 지역 학생에게 편중된 전형이라는 의견도 있다(최상은, 2022). 졸업 후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이 실제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가 하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윤상형, 2022)도 있다. 이에 따라 학종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허정은·박창언, 2019), 앞서본 학종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학종 축소 혹은 폐지가 쉬운 것은 아니다.

봐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고 분량도 줄었으며,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어(〈표 3〉 참고)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박찬호·이진희, 2018; 차정민, 2022; 최상은, 2022).¹¹⁾ 결국 상황맥락(context)보다는 문맥락(cotext)(권오현, 2025)을 통해 학생부를 보아 학종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허정은·박창언 2019). 학생부에서 학생들의 수업에서의 활동을 기재할 때(비록 학생들이 나중에 이의제기 등을 통해 수정된다고 할 지라도) 학생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떻게 잘 적어주느냐의 교사의 역량이나 태도(최상은, 2022)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부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¹²⁾ 이러한 탓인지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 예측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된다(차정민, 2022)(〈Appendix 표 2〉 참고).

또한 학생부 기재사항 감소(〈표 3〉 참고)는 상대적으로 수능 및 교과성적과 등급과 같은 정량적 시험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전공 관련된 필요 과목 선택 및 이수 여부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창체)의 내실 있는 기록과 더불어 다른 평가요소(예: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와 면접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윤상형, 2022).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시작되어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변경되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어 학종에서 학생부 내용과 면접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11) 이는 1인당 부여되는 과도한 평가 건수[대학알리미 기준 최소 50여 건 내외에서 최대 800여 건(복장희, 2025)]로 인한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허정은·박창언 2019).

12) 한편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에 대한 나름의 지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일반적이고 구체화하기 어렵다. 또한 따라서 교사도 학생의 학습과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적어야 할지 고민하고(장승일, 2022), 교사의 입력 부담이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문다애, 2025). 이 때문에 학종이 학생평가 외에도 학교 및 교육환경 평가라는 의견도 있다(최상은, 2022).

〈표 3〉 학생부 기재 내용 및 기타 서류 변화

(교육부, 2019: 5; 이정림 외, 2021: 19; 이정현, 2023; 윤상형, 2022; 피옥희, 2021; 강경래, 2022; 송현섭, 2022; 최상은, 2024; 김민경, 2025의 내용 재구성 및 종합)

구분		2021학년도	2022 - 2023학년도	2024 - 2026학년도 (최상은, 2024)
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과목당 500자 (기초/탐구교과 모두 기재)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미기재	• 과목당 500자 (기초/탐구교과 모두 기재) • 방과후활동 미기재 • 영재, 발명교육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¹³⁾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율활동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 연간 500자 • 정규·자율 동아리, 청소년 단체활동, 스 포츠 클럽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연간 500자(최상은, 2024) • 자율 동아리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연간 500자(최상은, 2024) •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정규 동아리 반영)(김민경, 2025) •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연간 500자 • 실적 및 특기사항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 영(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 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대입 반영 (3년간 6건)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기타 ¹⁴⁾	• 자기 소개서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송현섭, 2022)	• 서식 간소화 (4개 문항 5000자 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강경래, 2022, 송현섭, 2022)
기타 ¹⁴⁾	교사 추천서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송현섭, 2022)	• 폐지(2022학년도)	• 폐지(강경래, 2022)
	기타	• 대학입학 시 블라인드 및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확대 • 고교 프로필 폐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 및 확인 권고		

1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한 자료로서,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고 일종의 추천서 혹은 지도자료 등의 역할을 한다(송현섭, 2022).

14) 교육부 소속이 아닌 과기부 소속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비롯하여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은 여전히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이선행, 2023).

3) 학종에서 평가의 한계

설상가상으로 학종 학생부 및 면접 평가시 소속학과 교수가 진행하면, 전공적합성이나 진로역량을 평가하는데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평가자 신분이 노출되므로(강경래, 2022), 다른 과 교수가 서류 및 학생부 평가도 하게 된다. 최근 정부의 무(無)전공 입학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따라 2025학년부터 무전공 입학이 늘어나고 학부제 시행이 늘어나면서(안선희, 2024; 최예나·이문수, 2024) 행정학과 학생 선발에 다른 학과 교수들도 학생부 및 면접 등의 평가에 전공과 상관없더라도 관여가 늘었다. 그런데 위촉입학사정관의 비율이 높은 데다가 경력마저도 짧은 경우에는 평가에 문제가 될 수 있다(강경래, 2022). 따라서 학종의 불명확성 보완과, 행정학과 교수가 아니어도 행정학과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최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이론적 배경: PSM¹⁵⁾과 선발

1) PSM: 공공영역에서 PSM 논의 시작과 확장

이를 위해, 선발기준의 극히 “일부”라도 PSM 적용이 필요하다(V. 결론 및 논의의 뒷부분 참조). PSM은 역량중심 학생 선발에서 강조되는 인성 및 공동체 분야 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PSM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김상묵, 2024), PSM이 행정학과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적합한 이론임에도,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

행정학 고유 개념 중 하나인(김상묵, 2018) PSM 연구는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었고(김상묵, 2013) 개념적 정의와 이론으로서 함의가 소개되었다(박정호, 2017). PSM의 정의는 다양하나(Bozeman & Su, 2015; 김상묵, 2021), 그 기본적 의미는 유사하다(김상묵, 2018). 결국 PSM은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과 공공가치를 추구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미있는 봉사를 하려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Kim, 2018: 133; 김상묵, 2018: 50). PSM은 미국에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동기와는 다른 공무원들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개념이다(Perry & Wise, 1990; 김상묵, 2018). 이후 여러 발전을 통해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4가지 차원의 척도(〈표 4〉 참고)가 개발되었다(Kim, 2017; 김상묵, 2018).

15) 학자마다 PSM을 다양하게 번역하고[예: 공공봉사동기(김상묵, 2013, 2018, 2021, 2023, 2024; 김태호·노종호, 2010; 이수영·최낙범, 2016; 이혜윤, 2017; 전대성·이수영, 2015; 박정호, 2017). 공직동기(고길곤·박치성, 2010; 김서용, 2009; 김서용 외, 2010), 공공서비스동기(김윤호, 2018)] 있지만, 본 연구는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봉사동기로 번역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각주 37에서 언급하듯이 연구 결과 PSM이 더 명확한 표현이어서 연구결과를 최종 작성할 때는 PSM으로 작성하였다.

한편 PSM 연구의 범위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및 비영리 부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교육에 대한 적용(예: 김상묵, 2021, 2024)에까지 확대되고 있다(김상묵, 2013).

〈표 4〉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PSM 척도 (Kim, 2017; 김상묵, 2018: 55)

하위차원	측정문항
공공봉사 호감도	· 나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도록 돕고자 한다.
	· 나에게 있어, 민주적 통치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 나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자 한다.
공공가치 몰입	·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공무원들은 항상 자신의 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 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지지한다.
	·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정심	· 나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동정이 간다.
	· 나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화가 난다.
	·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희생	·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 나 자신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 나는 사회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
	· 비록 내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좋은 계획에 찬성한다.

2) 선발 과정에 PSM 관련 국내외 연구와 공백

PSM 연구는 PSM의 개념과 측정, 선행 및 결정요인, 그리고 그 효과의 측면에서 연구된 것(김태호·노종호, 2010)에서 확장하고 있으나, 선발 과정에서 PSM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인사행정의 측면에서 PSM이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Christensen & Wright, 2011), PSM이 채용유형에 따른 목표 모호성, 역할 모호성에 미치는 영향(유승현·김준성, 2023), PS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박수경·문국경, 2023; 전대성, 2025), PSM이 채용 방법에 따른 공직의도(Huang et al., 2025) 외에도 PSM이 임용 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Bromberg & Charbonneau, 2020), 경쟁적, 표준화된 공무원 시험에서 PSM 높은 사람이 걸러질(winnowing out) 수 있다는 점을 주장(Chen et al., 2020)하는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한편 교육 분야에는 한국 학자들의 많은 학자들이 고등학교 교육과 PSM에 대한 연구(예: 김상묵, 2021, 2024; Holt, 2018b; Kim, 2021), 청소년기 PSM 대한 연구(예: Tao & Wen, 2023), 대학

생과 PSM에 대한 연구(예: Lee & Choi, 2016; Kim et al., 2023; Seider et al., 2011; Huang, 2022; Zhang et al., 2022) 및 대학원생의 PSM에 대한 연구(예: Einolf, 2016)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에서 PSM을 통한 행정학과 관련 학생 선발에 대한 연구는 물론 학종에서 PSM을 적용한 서류, 학생부, 면접에서 검토사항 연구는 없다.

3) PSM의 학생 선발기준으로서 가치와 학생 선발에 적용 가능성

PSM을 통한 학생선발이 가능하고 그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 교육이 PSM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Bright 2005; Camilleri 2007; Holt, 2018b; Moynihan & Pandey 2007; Perry, 1997; Vandenabeele, 2011; Kim, 2021; 김상묵, 2024). 기존 역량중심 평가에서 PSM을 통해 인성은 물론 학업, 진로 및 공동체역량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개개인의 PSM의 일정 부분은 사회진출 이전에 형성되고(김상묵, 2021), 그중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이 PSM에 영향을 미치며(Holt, 2018a; Kim, 2021; Kim et al., 2022; 김상묵, 2021, 2024),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참여와 관련 과목을 배우면서 사회화(socialization) 외에도 사회적 동일시(social identification)와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통해서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에 대한 가치(values)와 규범(norms)을 내재화(internalize)하는 것(Kjeldsen, 2012; Kim, 2021)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교과목을 배우고, 비교과활동 및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PSM과 연관된 규범과 가치를 내재화하게 되는데(김상묵, 2021, 2024), 이를 학생선발시 학종에서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등 활동을 보며 서류,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 PSM도 볼 수 있다. <표 4>에서 언급되는 “헌법”, “통치체제”,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대상 학생의 학업역량을, “사회의 발전”,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행정학과에 대한 전공적합성 관련 진로역량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 “안타까운 마음” 등에서 인성을 포함한 공동체역량을 볼 수 있다.

4) PSM의 학생 선발에 적용을 위한 영향요인

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종교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Holt, 2018b)와 자선단체 기부(Anderfuhren-Biget, 2012)와 같은 여러 사회기관에 참여한 친사회적 경험(Perry, 2000; 박정호, 2015, 2017), 리더십 관련 경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 친구들과 협력하는 관계 및 사회 교과목에 대하여 스스로 건설적으로 평가하는 것(Kim, 2021),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Kim et al., 2022), 비교과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Kim, 2021), 교사를

돕거나 다른 학생을 멘토링하는 것(mentoring)(Holt, 2018b) 그리고 학교교육 만족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관계 및 교사의 열의(김상묵, 2021) 등은 PSM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 외 다수 연구에서 동료와의 관계 및 역할과 사회복지 단체 기부가 PS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묵, 2018).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김상묵(2021)은 협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을 강조하고, 특히 사회탐구 관련 교과목에서의 협동학습이 PSM(Kim, 2021) 및 민주시민의식 등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박하나 외, 2021; 함은혜·백선희, 2016; 김상묵, 2021). 또한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이에 대한 지원(김상묵, 2021)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성)(송현섭, 2022)의 내실있는 운영을 PSM 함양을 위해 주장한다(김상묵, 2018, 2021; Kim et al., 2022). 그 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학생의 PSM 관련 활동을 볼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기반 학교교육활동이 PS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김상묵, 2024). 그 외에도 연령, 성별 외에도 우리나라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부모, 종교, 소득, 전문직 등 일반강화요인 외에도 조직문화 등 조직강화요인(김운호, 2018) 등을 분류하여 볼 수 있다(〈Appendix 표 3〉 참고).

PSM이 높으면 높은 직무태도(김상묵, 2018)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고자 할 것이다(김상묵, 2021). 사회 전반적으로 PSM이 높아지면 사회 갈등이 감소하고,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증진되며,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김상묵, 2013). 비록 PSM이 공직선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라도(Lee & Choi, 2016), 장기적으로 공직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Wright & Christensen, 2010) 행정학과에서 PSM이 높은 학생을 그 평가에 일부로 보는 것은 필요하다.

III. 데이터 및 분석

1. 데이터 및 수집과정

텍스트에는 행위자들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기에(박치성·이준석, 2017),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개방형 심층설문 작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설문을 위한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¹⁶⁾ 교육과 설문에 대

16) IRB를 통해서 연구의 윤리적 지침 및 교육을 받고 설문내용을 허가받았다. 사전에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설명하며, 설문의 시간 및 주의사항,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의 이익(6만원)과 손해를 알려주었다.

한 검증을 받고,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문가를 통한 개방형 설문작성을 실시하고 확인하였다. PSM을 상세히 설명하고 입시 경험이 있는 교사 7명, 입학사정관 관련 경력이 있는 교수 6명, 전임입학사정관 6명 총 19명¹⁷⁾에게 개방형 심층 설문(박찬호·이진희, 2018)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전에 PSM을 설명하고, <표 4>에 기반한 PSM의 4가지 차원 별로 어떤 면을 학생부 및 면접에서 검토사항을 시간과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세부적”, “구체적”으로 글로 작성하게 하였다(<Appendix 5> 참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표 5, 6> 참고).

<표 5> 개방형 심층 설문 대상 전문가 특성(경력)

(단위: 년)

전문가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현 자신의 업무(교사, 입학사정관, 교수)에서 총 근무경력	11.32	8.33	1.5	27
입시관련(입학사정관 및 고등학생 입시 지도 관련 등) 근무경력	6.71	5.09	1	15
입학사정관 경력이 있을 경우 입학사정관 경력	4.58	4.68	1	15

<표 6> 개방형 심층 설문 대상 전문가 특성(일반)

전문가 특성		퍼센트(%)	전문가 특성		퍼센트(%)
현재 소속기관	① 고등학교	31.58	성별	① 남자	52.63
	② 대학교(혹은 대학원)	63.16		② 여자	47.37
	③ 기타	5.26	연령대	① 20대 혹은 이하	0
소속기관의 지리적 위치	① 서울	26.32		② 30대	21.05
	② 경기도	15.79		③ 40대	57.89
	③ 인천	5.26		④ 50대	15.79
	④ 강원도권	10.53		⑤ 60대 이상	5.26
	⑤ 충청도권	15.79	학력수준	① 고졸이하	0
	⑥ 경상도권	5.26		② 전문대졸	0
	⑦ 전라도권	15.79		③ 대졸(4년제 이상)	26.32
	⑧ 제주도권	5.26		④ 대학원졸 이상	73.68
입학사정관 경력 유무	① 유	63.16			
	② 무	36.84			

17) 제한된 개인연구자금의 한계와 설문 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전문가 수 19인은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델파이 기법에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인 최소 10명에서 15명(Skulmoski et al., 2007; 정선영 외, 2024)을 충족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 코딩 및 분석

데이터의 전처리 및 코딩으로 불용어 및 제외어 및 특수단어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고려하여 지정어 및 유의어 사전을 통해서 사전처리(박치성·정지원, 2013; 박치성·이준석, 2017; 사이람, 2017)를 실행하여 측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사전(dictionary)작업은 유의어(thesaurus),¹⁸⁾ 지정어(defined words)¹⁹⁾ 및 제외어(exception list)²⁰⁾를 처리하였다(사이람, 2017). 그 과정에서 원자료가 가진 맥락고려(안준희, 2018)를 확인하여 무의미한 단어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단어의 출현 빈도 및 글의 맥락과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최소 3회 이상 출현하고 3개의 설문자가 작성한 것이 설문 문항에 나오면 이는 의미있다고 보고 전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연구의 개방형 심층 설문의 답변을 가지고 넷마이너(Netmi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종 관계자들이 PSM을 살펴보기 위한 학생부 및 면접에서 검토사항의 텍스트 경향과 구조(유하라, 2023)를 핵심 단어와 그 관련성 및 의미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본 분석으로 학생부와 면접에서 PSM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개방형 심층 설문 답변에 대한 단어 빈도수(유하라, 2023) 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PSM 검토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그림 1, 2>, <표 7, 8> 참고).

심화 분석으로 개방형 심층설문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²¹⁾을 통해 PSM으로 학생선발을 위한 전문가들의 투영된 시각과 공유된 의미구조를 파악하여(박치성·정지원, 2013) 학종에서 학

18)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여러 개 단어를 단어 하나로 추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사이람, 2017). 다양한 다른 표기(예: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임에도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다른 어휘 및 띄어쓰기의 차이에 따라 넷마이너 프로그램이 다르게 인식하는 단어(예: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창의적체험 활동 등)를 하나로 통일하였다(박치성·정지원, 2013).

19) 고유한 단어(예: 사람 이름, 전문 용어, 고유 명사 등)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추출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기능을 의미한다(사이람, 2017). 예를 들면 과목 이름인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등이 있다.

20) 중요하지 않아서 추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사이람, 2017). 예를 들면 ‘란’, ‘수’ 등이 있다.

21) 텍스트 네트워크는 내용분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접목한 것이다(박치성·이준석, 2017; 최영출·박수정, 2011). 텍스트의 표면적 특성만 분석(Lewis et al., 2013)하는 한계를 넘기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텍스트 구조 분석이 가능하여(박치성·이준석, 2017),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혼합한 혼합 방법(mixed method)(Cho, 2024)을 가능하게 한다. 노드(node)인 단어와 단어의 동시 출현(공출현: co-occurrence)이 곧 노드 간 관계가 되는 것이다(박치성·이준석, 2017).

생부와 면접에서 검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관되어 사용되는지 분석의 엄밀성(신뢰성과 타당도)을 향상시켰다. 이를 위해 PSM의 하위차원 구분없이 전체적으로(〈그림 3, 4〉, 〈표 9, 10〉 참고), PSM의 4가지 각각 하위차원별로(〈그림 5-12〉, 〈표 11-18〉 참고) 나누어 답변한 설문 문항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중심성[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및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보여주는 표²²⁾와 동시출현 단어의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sociogram)을 그림(최영출·박수정, 2011)을 제공하여 텍스트 구조를 보여주었다(박치성·이준석, 2017).

IV. 학종에서 PSM을 보기 위한 학생부 및 면접 검토사항 분석결과

분석 결과는 학종에서 학생 선발시 PSM에 기반하여 학생부 심사와 면접에서 검토사항을 보여준다. 문헌연구에서 논의된 고교교육에서 PSM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학종의 학생부와 면접에서 반영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 및 성별, 소득, 연령 및 출신학교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²³⁾

1. 학종 학생부와 면접에서 PSM 검토사항: 워드 클라우드와 빈도분석

1) 학생부 워드 클라우드와 빈도분석

학생부에서 PSM을 검토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담임 선생님”이 기재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각종 “봉사”, “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이 주로 나타난다. 그 외에 활동 및 협동과 관련 “학급”, “동아리”, “동아리 활동”이나 “리더십” 등이 언급되고 있다.

22) 전문가의 의견과 주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개중심성을 통해 중요역할을 하는 노드의 판별과 이를 연결중심성과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역할을 세부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박치성·정지원, 2013). 연결중심성을 통해 하위군집에서 허브(local hub) 역할을 하는 노드를 볼 수 있다(박치성·정지원, 2013). 매개중심성을 통해 여러 개념 사이에서 중간의 다리와 같은 매개자적 역할과 교차점(junction)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박치성·정지원, 2013). 이를 통해서 PSM을 보기위해 학생부와 면접에서 “검토사항”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을 중심으로 순위를 보여줄 때 연결중심성을 중심으로 표에 순위를 정하되, 연결중심성이 동률일 때는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보여주었다.

23)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표 3〉 참고

〈그림 1〉 학생부 검토사항으로 언급된 워드 클라우드



〈표 7〉 학생부 단어 상위 50위 단어 빈도분석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233	27	지도	22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90	29	수업	21
3	봉사	128	29	학습	21
4	활동	113	31	부장	20
5	교과학습발달상황	85	32	과정	19
6	교과목	78	32	독서활동상황	19
6	학급	78	34	발표	18
8	자율활동	65	34	출결상황	18
9	기여	52	34	평가	18
10	동아리	48	37	도서명	16
11	동아리 활동	47	37	리더십	16
11	참여	47	37	저자	16
1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6	37	참가	16
13	인성	46	37	학년	16
15	자율	45	42	과제	15
16	학교	44	42	사회문화	15
17	학생	36	42	전공적합성	15
18	독서활동	35	42	태도	15
19	멘토	32	46	도대	14
19	수행	32	46	윤리와 사상	14
19	진로	32	46	정치와 법	14

22	영역	31	46	탐구	14
23	정도	26	50	1인1역	13
24	담임 선생님	24	50	경제	13
24	사회	24	50	교내	13
26	지원자	23	50	자치회	13
27	수상경력	22	50	통합사회	13

2) 면접 워드 클라우드와 빈도분석

면접에서 검토사항은 상대적으로 학생부보다 다양한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 학생(“본인”, “자신”)의 “학급” 및 “학교”에서 “생각”과 “활동”을 물어보거나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하고, “말(言)”하도록 하는 것²⁴⁾을 볼 수 있다.

〈그림 2〉 면접 검토사항으로 언급된 워드 클라우드



〈표 8〉 면접 검토사항으로 언급된 단어 상위 50위 단어 빈도분석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학급	108	24	지원자	24
2	경험	98	27	가치	23
3	본인	97	27	구체적	23

24) 예를 들어 가정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경우”, “때”, 등)가 많이 나온다. “때”가 학생부 관련 설문에서 1번 나왔지만, 면접관련 설문에서는 16번 등장한다. 그 외에도 의견을 말하는 “말(言)”(표 8, 10 참고)이라는 단어가 학생부에서 보다 자주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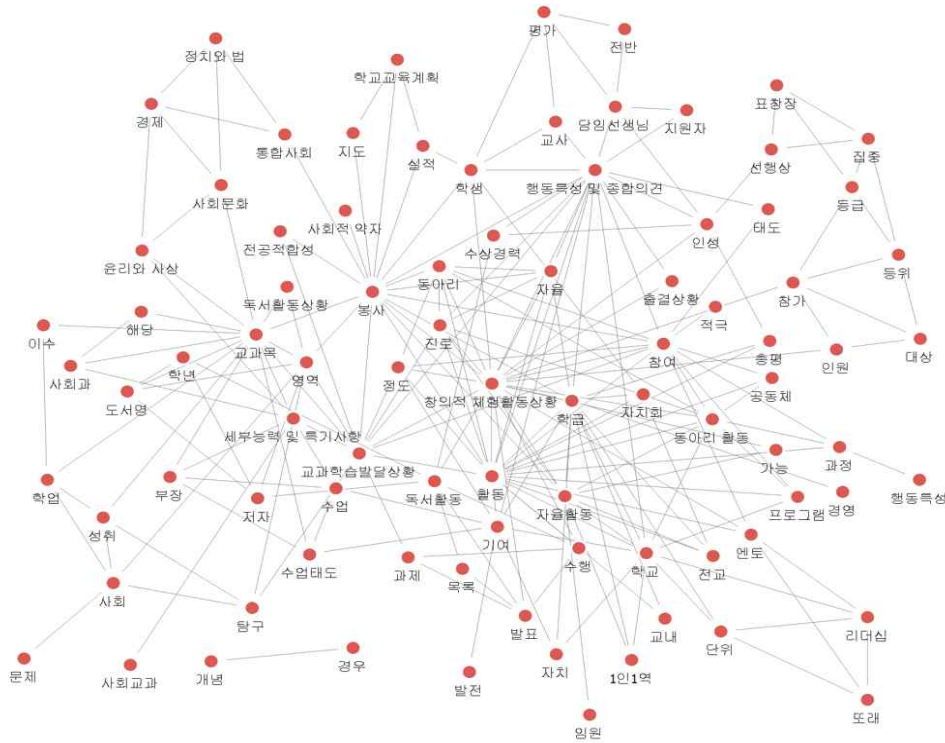
4	생각	85	27	동아리 활동	23
5	활동	75	27	발전	23
6	학교	61	27	희생	23
7	봉사	53	32	복지	21
8	사회	51	32	이유	21
9	개인	35	34	리더	19
10	사람	33	34	친구	19
11	기여	32	3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9
12	소감	31	37	사회적 약자	18
12	수행	31	37	설명	18
14	상황	30	37	해결	18
14	자신	30	40	과정	17
14	참여	30	40	문제	17
17	말(言)	28	40	방법	17
1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28	40	정도	17
19	부분	27	44	때	16
20	경우	26	44	선택	16
20	노력	26	44	질문	16
20	중요	26	44	행동	16
20	회장	26	48	이익	15
24	공약	24	48	자유	15
24	역할	24	48	학생	15

2. 학종 학생부와 면접에서 PSM 검토사항: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1) 학생부에서의 텍스트 네트워크

텍스트 네트워크에서도 앞서 살펴본 빈도분석과 유사하게, 상위단어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이 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활동” 및 “봉사” 등이 나타난다. 또한 “봉사”에 대한 연결 및 매개 중심성이 높고 이것이 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순위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봉사”가 그만큼 PSM에서 강조되어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 다른 단어와 허브 및 교차점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 “참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표 7>의 단순 빈도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순위가 나타나 이것들이 다른 것과 많이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학생부 텍스트 네트워크



〈표 9〉 학생부에서 연결 및 매개 중심성(centrality) 상위 50위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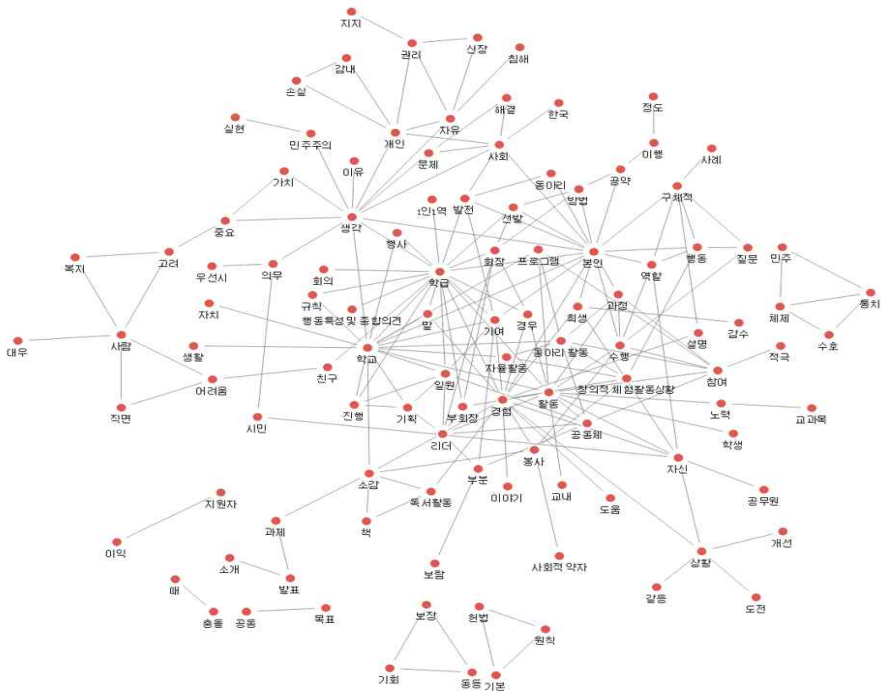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161765	0.104478	26	발표	0.036765	0.004747
2	활동	0.161765	0.049938	27	수행	0.036765	0.003092
3	봉사	0.132353	0.105535	28	과정	0.029412	0.00915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0.132353	0.061403	29	탐구	0.029412	0.004834
5	학급	0.117647	0.03856	30	등급	0.029412	0.004668
6	교과목	0.110294	0.073147	31	수업태도	0.029412	0.004384
7	참여	0.102941	0.027412	32	도서명	0.029412	0.003682
8	교과학습 발달상황	0.095588	0.062816	33	사회문화	0.029412	0.002924
9	학교	0.080882	0.012036	34	저자	0.029412	0.002827
10	자율활동	0.073529	0.016557	35	등위	0.029412	0.002267
11	동아리 활동	0.073529	0.00482	36	수업	0.029412	0.002242

12	기여	0.066176	0.023767	37	단위	0.029412	0.002109
13	영역	0.058824	0.024681	38	평가	0.029412	0.002062
14	진로	0.058824	0.001442	39	윤리와 사상	0.029412	0.001826
15	동아리	0.058824	0.000798	40	성취	0.029412	0.001179
16	독서활동	0.051471	0.016679	41	학업	0.029412	0.001124
1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0.051471	0.016127	42	집중	0.029412	0.000719
18	학생	0.051471	0.013123	43	자치회	0.029412	0.000695
19	자율	0.051471	0.000368	44	리더십	0.029412	0.000621
20	인성	0.044118	0.022496	45	부장	0.029412	0.00061
21	정도	0.044118	0.001818	46	경제	0.029412	0.000399
22	참가	0.036765	0.027192	47	전교	0.029412	0.000162
23	멘토	0.036765	0.010715	48	프로그램	0.029412	0.000116
24	사회	0.036765	0.009433	49	통합사회	0.022059	0.013269
25	담임선생님	0.036765	0.008809	50	선행상	0.022059	0.011479

2) 면접에서의 텍스트 네트워크

면접에서 PSM을 검토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학생 “본인”의 “경험”, “생각”과 그리고 “학급”과 “학교”에서의 “활동”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학생부보다 면접에서 보다 다양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다 보니 그 중심성의 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면접에서 “생각”에 대한 매개 중심성이 높은 것을 보면 학교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과 연계해서 “생각”을 물어보아 하위구조간 의미의 교차점 역할을 하여 의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면접에서 학생들의 “생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표 9> 학생부에서 강조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 <표 10>에서 상대적으로 (50위 밖으로 벗어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보다 면접에서도 주요 검토사항으로 나타난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하는 활동이 학생부 심사에서 보다는 덜 중요시 되지만 “동아리 활동”과 함께 면접에서 여전히 중요한 검토사항임을 보여준다.

〈그림 4〉 면접 텍스트 네트워크



〈표 10〉 면접에서 연결 및 매개 중심성(centrality) 상위 50위 단어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학급	0.094787	0.052756	26	역할	0.023697	0.001792
2	본인	0.080569	0.052858	27	행동	0.023697	0.001672
3	학교	0.080569	0.040086	28	발전	0.023697	0.001574
4	경험	0.075829	0.044047	29	희생	0.018957	0.004824
5	활동	0.07109	0.030171	30	부분	0.018957	0.004331
6	생각	0.056872	0.063394	31	권리	0.018957	0.004316
7	사회	0.033175	0.011567	32	방법	0.018957	0.000632
8	자신	0.033175	0.010481	32	프로그램	0.018957	0.000623
9	기여	0.033175	0.007628	34	경우	0.018957	0.000533
10	수행	0.033175	0.006108	35	부회장	0.018957	0.000425
11	참여	0.033175	0.004684	36	선발	0.018957	0.000372
12	동아리 활동	0.033175	0.002122	37	기획	0.018957	0.000309
13	일원	0.033175	0.00191	38	진행	0.018957	0.000185
14	리더	0.033175	0.001749	39	중요	0.014218	0.010524
15	소감	0.028436	0.017216	40	어려움	0.014218	0.009359

16	개인	0.028436	0.013083	41	공약	0.014218	0.008305
17	구체적	0.028436	0.005787	42	고려	0.014218	0.006823
18	공동체	0.028436	0.001475	43	의무	0.014218	0.005772
19	회장	0.028436	0.001306	44	독서활동	0.014218	0.00089
20	상황	0.023697	0.012458	45	문제	0.014218	0.000724
21	자유	0.023697	0.011462	46	자율활동	0.014218	0.000298
22	사람	0.023697	0.005598	47	질문	0.014218	0.000238
23	봉사	0.023697	0.005205	48	말	0.014218	0.000197
2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023697	0.002008	49	체제	0.014218	0.000023
25	과정	0.023697	0.001801	50	통치	0.014218	0.000023

이와 같은 분석으로 볼 때 기존 PSM 전반과 관련되어 개인적 요건이나 특성보다는 “국가”, “사회”를 위한 공공의 활동을 학교활동에서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 몰입과 연결된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사회과목(“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은 PSM 검토사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성”, “선행상” 등을 강조하여 PSM의 동정심 및 자기희생은 물론 공동체역량과도 연결된다(〈그림 1, 3〉, 〈표 7, 9〉, 〈Appendix 표 3〉 참고).

3. 학종 학생부와 면접에서 PSM 4가지 차원별 검토사항

위와 같은 기본 분석은 개괄적으로 PSM을 보기 위한 것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시각이나 의미구조를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심화 분석으로 학종에서 더 구체적인 PSM 4가지 차원의 의미구조를 통한 검토사항을 보기 위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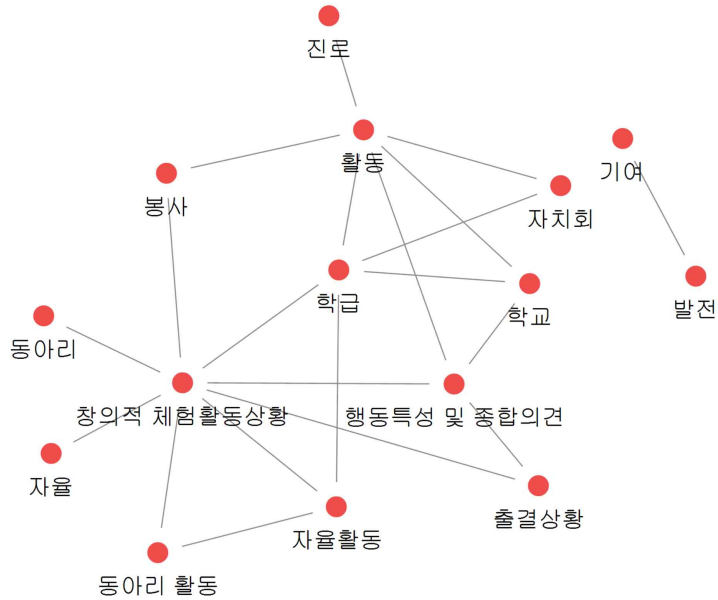
1) 학생부에서의 텍스트 네트워크

(1) 학생부: 공공봉사 호감도

기본적으로 〈그림 3〉 〈표 9〉의 학생부에서 강조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과 관련되어 “학급” “학교”에서의 “활동”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나타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 연결중심성이나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 허브와 교차점 역할을 하여 PSM의 공공봉사 호감도와 연결되는 주요 사항임을 보여준다. 맥락으로 보면 아래 〈그림 5〉 〈표 11〉에서 “학급”, “학교”에서의 “활동”, 즉, “봉사”, “동아리”, “자치회”와 같은 단체활동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공공봉사

호감도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자치회”는 PSM 전반을 볼 때 <표 7, 9>의 50위, 43위에서 <표 7, 9>의 8위까지 급상승했다. 이는 공동체역량과도 관련되어 학교의 학습 및 개인 단 순 활동보다는 단체활동 관련 기재된 내용을 통해 <표 4>의 공공봉사 호감도 측정문항에서 나오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음을 학생부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학생부 ① 공공가치 호감도 텍스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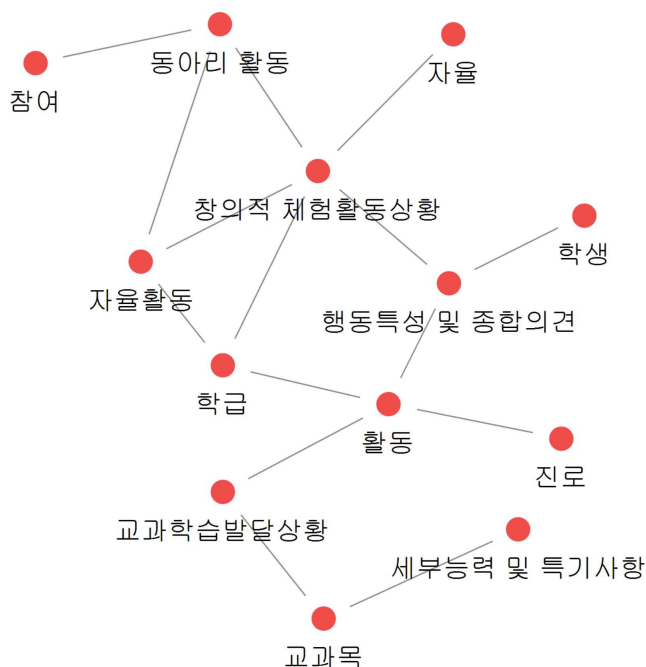
〈표 11〉 학생부 ① 공공봉사 호감도 연결 및 매개 중심성 상위 10위 단어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109589	0.012938
2	활동	0.082192	0.006215
3	학급	0.068493	0.005391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0.054795	0.002981
5	자율활동	0.041096	0.000698
6	학교	0.041096	0.000127
7	봉사	0.027397	0.000951
8	동아리 활동	0.027397	0
8	자치회	0.027397	0
8	출결상황	0.027397	0

(2) 학생부: 공공가치 몰입

기본적으로 학생부에서 보는 <그림 3> <표 9>와 유사하지만, 공공봉사 호감도와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 6> <표 12>의 공공가치 몰입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외에도 상대적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부각된다. 설문자료의 맥락을 살펴보면 공공가치 몰입을 “학급”, “활동” 같은 단체 활동(동아리, 봉사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자치회, 공동체, 동아리 등) “참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한 <표 4>의 공공가치 몰입 측정문항상 “자유”, “권리”, “민주주의” 등의 사회교과 관련 용어들이 있어, “교과목”(사회관련 과목) 지식도 상대적으로 강조²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가치 몰입과 연결되며 기존의 학업역량과 진로역량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활동”이 연결 및 매개 중심성에서 모두 강조되어 있는 것은 “활동”이 학생부에서 기재된 다양한 검토사항들의 허브 및 교차점 역할을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가치 몰입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6> 학생부 ② 공공가치 몰입 텍스트 네트워크



25) 실제 설문을 보면 “이수 교과목”, “사회 교과”, “사회과 과목” 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다.

〈표 12〉 학생부 ② 공공가치 몰입 연결 및 매개 중심성 상위 10위 단어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076923	0.01234
2	활동	0.061538	0.017308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0.046154	0.009295
4	학급	0.046154	0.008013
5	동아리 활동	0.046154	0.005288
6	자율활동	0.046154	0.002083
7	교과학습발달상황	0.030769	0.009615
8	교과목	0.030769	0.005288
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0.015385	0
9	자율	0.015385	0
9	진로	0.015385	0
9	참여	0.015385	0
9	학생	0.01538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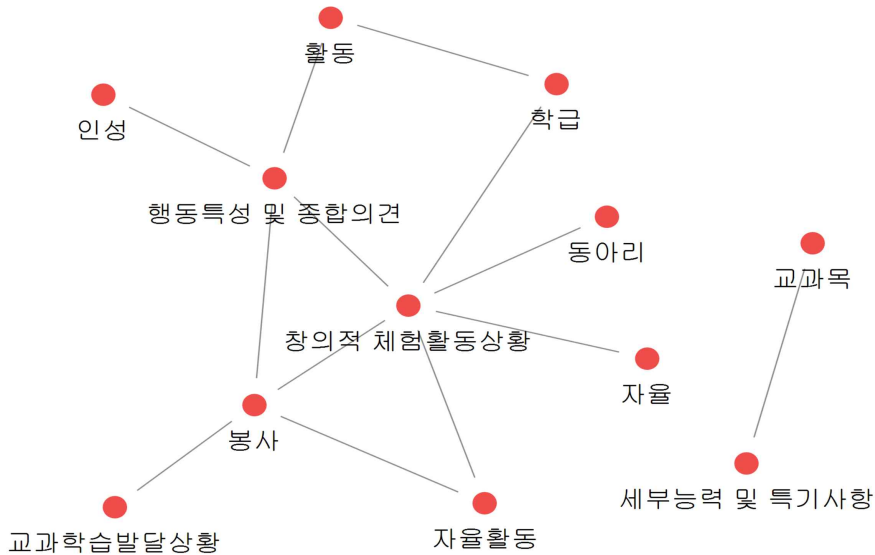
(3) 학생부: 동정심

기본적으로 〈그림 3〉 〈표 9〉 학생부에서 강조된 “활동”이 아래 〈그림 7〉 〈표 13〉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된 검토사항으로 나온다. 특히 다른 영역에 비해 담임선생님이 기재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 “인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PSM의 동정심과 연결되어 인성은 물론 공동체역량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맥락적으로도 “봉사”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연계된 “활동”과 연결되어 “봉사활동”으로 등장²⁶⁾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 4〉의 동정심 측정문항상 “사회적 약자”, “복지” 등의 내용이 나와 “복지” 등 관련 교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²⁷⁾ 통해 학업 및 진로역량은 물론 동정심과 연결되어 공동체역량도 검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예시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 영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내역이 있는지 확인”(교사 5)이 있다.

27) 예시로 “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교과세특 내용 확인”(교수 6)이 있다.

〈그림 7〉 학생부 ③ 동정심 텍스트 네트워크



〈표 13〉 학생부 ③ 동정심 연결 및 매개 중심성 상위 10위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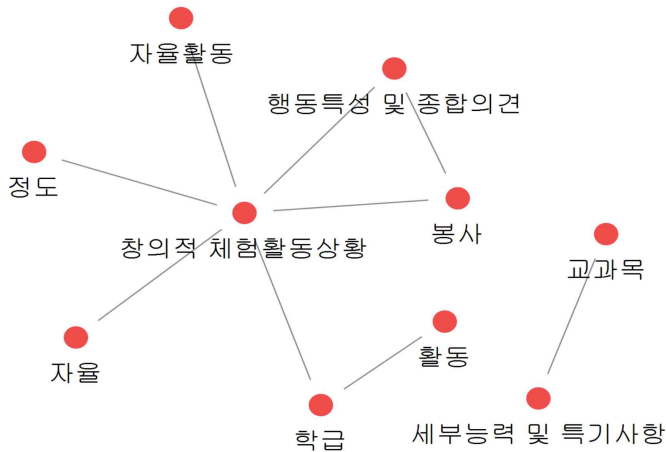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083333	0.008086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0.055556	0.00476
3	봉사	0.055556	0.003652
4	학급	0.027778	0.000717
5	활동	0.027778	0.000391
6	자율활동	0.027778	0
7	교과목	0.013889	0
7	교과학습발달상황	0.013889	0
7	동아리	0.013889	0
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0.013889	0
7	인성	0.013889	0
7	자율	0.013889	0

(4) 학생부: 자기희생

동정심과 유사하게 〈표 14〉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중심성의 강도와 순위가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의 자기희생 측정문항상 “공공선”, “의무”, “손실”, “감내”가 교과 활동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같은 비교과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관련되어 “활동”²⁸⁾을 검토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맥락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주제탐구, 적응 및 개척 관련 활동, 봉사 등을 의미(교육부, 2022)하는 “자율활동”(교사 1, 교수 2, 입학사정관 1, 2, 6)을 많이 언급되었고, “학급 활동”(입학사정관 3) 등도 언급되었다. 아래 〈그림 8〉〈표 14〉의 자기희생 분야에서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 몰입에 비해서 “봉사”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봉사”를 통해 PSM의 자기희생과 연결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통해 공동체역량도 엿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8〉 학생부 ④ 자기희생 텍스트 네트워크



〈표 14〉 학생부 ④ 자기희생 연결 및 매개 중심성 상위 10위 단어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074074	0.005864
2	학급	0.024691	0.001852
3	봉사	0.024691	0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0.024691	0
5	교과목	0.012346	0
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0.012346	0
5	자율	0.012346	0
5	자율활동	0.012346	0
5	정도	0.012346	0
5	활동	0.01234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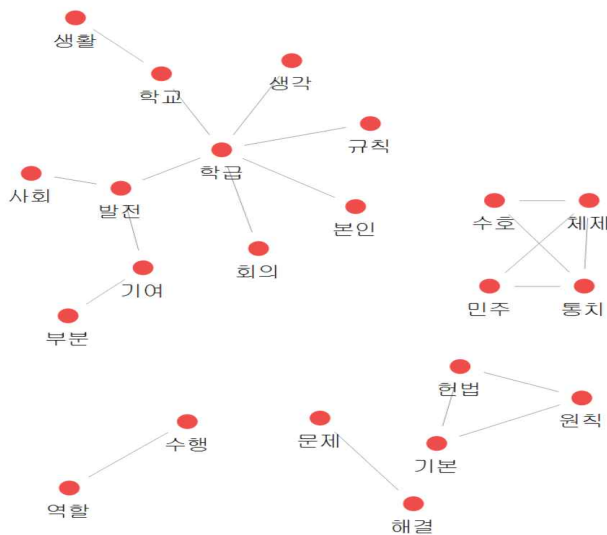
28) “학급”에서의 활동(예:1인 1역)(입학사정관 2), 봉사 “활동”과 기여 및 참여 “정도”나 협동의식 고취 “정도” 등을 중요시함을 볼 수 있다.

2) 면접에서의 텍스트 네트워크

(1) 면접: 공공봉사 호감도

기본적으로 <그림 4>, <표 10>의 면접에서 강조된 “학교”, “학급”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다. 이는 <표 4>의 공공봉사 호감도 측정문항상 “사회”, “헌법”, “통치” 관련된 “학급” 등에서의 “활동”을 면접시 검토하는 것이다. “학급”이 허브와 교차점 역할을 하는 것은 학종의 기본 목표인 학교 내에서의 공공의 활동을 면접을 통해 공공봉사 호감도와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 9> <표 15>를 볼 때, “사회-발전-기여” “민주-통치-체제-수호” “헌법-기본-원칙”의 독립된 텍스트 네트워크는 개념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 4> PSM 공공봉사 호감도 측정문항인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민주적 통치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도록 돕고자 한다.”를 하나의 어구로 묶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의 질문은 문맥상 상대적으로 공공봉사 호감도를 잘 나타내서 같이 사용되는 데 비해, 특히 후자의 2개의 질문은 다른 질문과 연계 및 응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9>의 “사회-발전-기여”는 <그림 9>과 설문자료를 볼 때 “기여” 부분이 학급, 학교, 동아리, 공동체 및 민주주의라는 부분과 다양하게 응용²⁹⁾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9> 면접 ① 공공봉사 호감도 텍스트 네트워크



29) 예를 들면 지원자가 학급, 학교, 동아리, 공동체 및 민주주의 등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는 문항(교사, 1, 2, 4, 5, 6 입학사정관 3, 4, 6) 등이 있다.

〈표 15〉 면접 ① 공공봉사 호감도 연결 및 매개 중심성 상위 10위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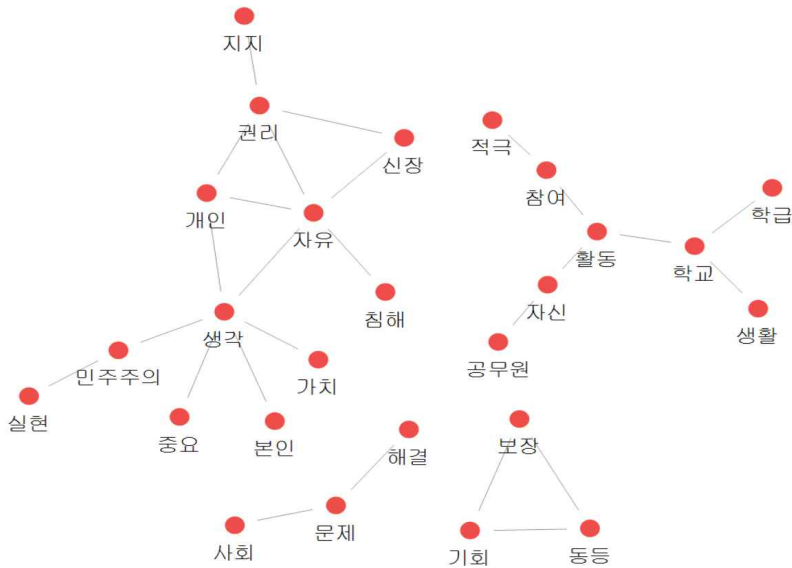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학급	0.083333	0.014867
2	발전	0.041667	0.008998
3	체제	0.041667	0.000196
3	통치	0.041667	0.000196
5	기여	0.027778	0.003521
5	학교	0.027778	0.003521
7	기본	0.027778	0
7	민주	0.027778	0
7	수호	0.027778	0
7	원칙	0.027778	0
7	헌법	0.027778	0

(2) 면접: 공공가치 몰입

〈그림 4〉, 〈표 10〉의 면접에서 특성과 유사하게 “학교”에서 “활동” 관련 “생각”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는 학생부에서의 공공가치 몰입에서 2개의 중심성을 보면 서류보다 면접에서 비교적 “생각”을 중요시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표 4〉의 공공가치 몰입 측정문항상 “시민”, “공무원”, “자유”, “권리”, “민주주의” 등 관련 활동에 대해 면접에서 물어 공공가치 몰입과 연결된다. 맥락적으로 “민주주의” 정의나 실현 방안을 묻는 것이 제시되고, “자유”, “권리”가 융합되어 다른 단어와 동시출현하고 응용되는 것을 볼 때,³⁰⁾ 사회교과 관련 개념의 이해를 통한 학업역량,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가치 몰입, 그리고 진로역량 및 공동체역량과 연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아래 〈그림 10〉 〈표 16〉을 볼 때 면접에서의 공공봉사 호감도와 유사하게 “동등-기회-보장”, “개인-자유-권리-신장-지지”에서 보듯이 〈표 4〉 PSM 측정문항인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지지한다.” 라는 기존의 측정문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질문과 함께 응용되지 못하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0) 설문에서 제시된 면접 문항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교사 3)가 있다.

〈그림 10〉 면접 ② 공공가치 몰입 텍스트 네트워크



〈표 16〉 면접 ② 공공가치 몰입 연결 및 매개 중심성 상위 10위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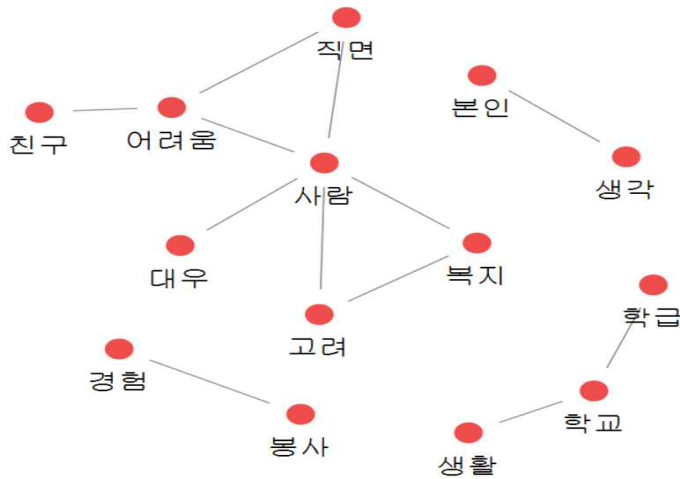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생각	0.061224	0.008205
2	자유	0.05102	0.004734
3	권리	0.040816	0.002209
4	활동	0.030612	0.003366
5	학교	0.030612	0.002314
6	개인	0.030612	0.001262
7	민주주의	0.020408	0.002104
8	자신	0.020408	0.001262
8	참여	0.020408	0.001262
10	문제	0.020408	0.00021

(3) 면접: 동정심

동정심 관련 문항에서는 아래 〈그림 11〉 〈표 17〉을 볼 때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고려”와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다. 동정심에 대한 측정문항이 상대적으로 이해가 용이해 “복지”나 “어려움”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응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및 그 “사람”을 “직면”할 때 그들에 대한 “복지”나 “봉사”를 통해 돕는

것, 이들에 대한 느낌, 생각 등을 질문하는 내용이다(교사 3, 4, 5, 7, 교수 2, 4, 입학사정관 3, 4). 이는 기본적으로 높은 연결성을 보여준 “사람”에 대한 학생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알 수 있어 학생의 PSM의 동정심을 물론 인성과 공동체역량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 4>의 측정문항상 “사회적 약자”, “복지” 및 “안타까운 마음” 등을 연결하여 면접을 통해 동정심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 면접 ③ 동정심 텍스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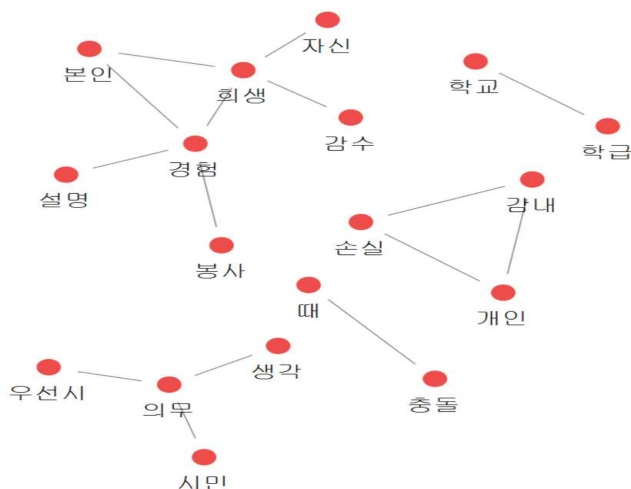
〈표 17〉 면접 ③ 동정심 연결 및 매개 중심성 상위 10위 단어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사람	0.073529	0.004829
2	어려움	0.044118	0.002195
3	학교	0.029412	0.000439
4	고려	0.029412	0
4	복지	0.029412	0
4	직면	0.029412	0
7	경험	0.014706	0
7	대우	0.014706	0
7	본인	0.014706	0
7	봉사	0.014706	0
7	생각	0.014706	0
7	생활	0.014706	0
7	친구	0.014706	0
7	학급	0.014706	0

(4) 면접: 자기희생

아래 <그림 12> <표 18>을 볼 때 다른 PSM의 다른 차원들보다 “경험”에 대한 두 개의 중심성의 강도와 순위가 높게 나타나 <표 4>의 자기희생 관련 문항의 “희생”, “의무” 등을 “감내”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때” 사용) “경험”을 묻는 것을 볼 수 있다.³¹⁾ 이는 PSM에서 자기희생과 연결되고 단순 생각만이 아닌 실제 “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앞서 동정심에서 보듯이, <표 4>의 자기희생 개념과 측정문항상 “공공선”, “의무”, “손실”, “감내” 등이 쉽게 이해가 되면서, 측정문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다양하게 응용되는 것³²⁾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생의 자기희생과 인성은 물론 이를 실천하는 “경험”의 확인을 통해 공공 인재로서 진로역량과 공동체역량도 볼 수 있다. 또한 “희생”, “의무”와 관련되어 자신이 공익, 사회 등을 위해 “손실”, “감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단순히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보다 손실에 대한 정도와 당위를 묻는 질문도 제시되었다.³³⁾

<그림 12> 면접 ④ 자기희생 텍스트 네트워크



31) “학급 학교 혹은 본인이 속한 동아리를 위해 본인이 희생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입학사정관 4)와 같은 질문 문항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32) “공공가치 물임에서 나온 “자유”, “권리”를 응용하여 “나의 권리와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교수 2)와 같이 문항을 응용하여 만들 수도 있다. “개인적인 손실도 감내”와 같은 측정문항이 “개인”-“손실”-“감내”로 같이 사용되었으니 이는 다른 것과 달리 <표 4> PSM 공공봉사 호감도 측정문항인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와 같이 개념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해당 용어가 맥락상 “희생”을 잘 대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 “사회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인적 손실을 감내하겠는가?”(교수 2), “공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희생이나 손실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교사 3).

〈표 18〉 면접 ④ 자기희생 연결 및 매개 중심성 상위 10위 단어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경험	0.049383	0.002778
1	희생	0.049383	0.002778
3	의무	0.037037	0.000926
4	감내	0.024691	0
4	개인	0.024691	0
4	본인	0.024691	0
4	손실	0.024691	0
8	감수	0.012346	0
8	때	0.012346	0
8	봉사	0.012346	0
8	생각	0.012346	0
8	설명	0.012346	0
8	시민	0.012346	0
8	우선시	0.012346	0
8	자신	0.012346	0
8	충돌	0.012346	0
8	학교	0.012346	0
8	학급	0.012346	0

V. 결론 및 논의: 다른 공공 인재 선발로 확장을 위해

학령인구 감소, 공무원의 인기하락과 등 사회 환경 변화 속에도 불구하고, 응용학문으로 행정학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학문, 학과에 적합한 행정학적 인재 선발을 위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중시, 탈권위적 성향이 증가하는 상황(안정습, 2020; 정성호, 2006; 김태우·조기웅, 2021)에서 역량중심 선발과 어우러져 PSM을 갖춘 인재 선발은 조직과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과정중심, 역량중심의 학생 선발에서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모호성 논란 있는 학종을 중심으로 선발방식 “보완”을 위한 연구이다. 그 결과 학생부 및 면접에서 PSM 적용을 위한 “검토사항”을 제시하여 행정학과 학생 선발시 1~2항목이라도 일부 도입 및 응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학종의 모호성을 전공별 주요원리를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연구결과, 문헌연구에서 논의된 PSM 사항이 개인적 요건이나 특성보다는 학교활동 중심으로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Appendix 표 3〉 참고)에서 학종에서 역량을 “보완”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PSM을 볼 때 학생부 평가보다 면접평가에서 더 다양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류(학생부)에서 일정 정도 평가되거나 평가하여야 할 사항이 면접 시 면접관의 질문을 통해 구체화, 심화되는 것이다. 학생부에서는 또한 상대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담임 선생님이 기재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빈도와 중심성이 높아 학생부 심사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그 외 각종 봉사, 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나왔다.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교 및 학급에서 하는 경험, 활동 및 생각 등 관련 높은 중심성 지수는 학생들의 학교 공교육 속에서 생각, 활동을 물어보거나,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하고 말하는 다양한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PSM 4가지 하위차원별로 볼 때, 학생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그 외 교과학습발달상황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련 활동 및 봉사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고, 면접에서는 학생의 학교 및 학급에서 생각이나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희생하는 것을 면접질문으로 한다는 것이 도출되었다. 한편 사회교과 관련 지식 검토를 통해 학생의 공공봉사 호감도 및 공공가치 몰입, 학업 및 진로역량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기존의 PSM 측정의 연장선 상에서 역량은 물론 교과/비교과 부분을 고르게 볼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학생부로 공공봉사 호감도를 볼 때 “자치회”에 대한 중요성이 급상승하고, 자기희생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경험을 보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구체적 하위차원별 학생부와 면접 분석결과와 예시는 〈표 19〉 참고). 따라서 일부 PSM에 기반한 평가는 기존의 역량중심의 학생 평가와도 궤를 같이하면서 기존의 학생부 “일반적” 광범위한 확인 검토 사항(〈Appendix 표 4〉 참고)에서 부담을 줄이고,³⁴⁾ 〈표 19〉에 있는 예시를 통해 “PSM”에서 공공성과 행정학과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확인 검토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며 그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어 학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4) 추가적인 예로 기존의 8개의 카테고리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카테고리(1. 인적·학적사항, 2. 출결상황, 3. 수상경력,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7. 독서활동상황)는 제외되어 3개의 카테고리(5.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6. 교과학습 발달상황,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로 PSM 관련 검토사항을 줄였다.

〈표 19〉 PSM을 살펴보기 위한 학생부 및 면접에서 검토사항 및 선발에 적용

하위차원	학생부 주요 검토 사항	면접 주요 검토 사항
공공 봉사 호감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학급” 등에서 단체 “활동” 등 - 관련 예시: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봉사활동, 자치회 활동, 독서 활동 등	- “학교”, “학급” 관련 활동 - 예시 질문³⁵⁾: 지원자가 학급, 학교, 동아리, 공동체 및 민주주의 등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교사 1, 2, 4, 5, 6 입학사정관 3, 4, 6, 교수 1) - 예시 질문: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및 동아리 활동 학교 프로그램 활동 참여 과정과 동아리 활동 시 공동체 활동 참여 과정에서 수행한 본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동 질문” (입학사정관 1) - 예시 질문: “학교 규정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을 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사 3). ※ 기존의 PSM 측정문항(〈표 4〉의 일부) 등을 활용한 질문 제시 (추후 보완 연구 필요)³⁶⁾
공공 가치 몰입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 사회과목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단체 “활동” 등 - 관련 예시: 사회과 이수과목,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등	- 학생의 “생각”과 “학교”, “활동” 및 “자유”, “권리”, “민주주의” 등 관련 사회교과 관련 개념 간접 확인 - 예시 질문: 학교, 학급,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문제해결(혹은 의사결정 등) 사례를 들고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교사 5, 입학사정관 3, 4, 교수 1) - 예시 질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사 3) - 예시 질문: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사 2) ※ 기존의 PSM 측정문항(〈표 4〉의 일부) 등을 활용한 질문 제시 (추후 보완 연구 필요)
동정심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활동”, “봉사” 활동, “인성” - “복지” 등 관련 교과목과 관련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 관련 예시: 담임선생님의 인성에 대한 총평, 사회과 이수 과목,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 활동 등	- “사람” 관련 “어려움”, “학교”, “복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 등을 활용한 질문 (상대적으로 다양한 응용 용이) - 예시 질문: 어려움에 처한 사람(친구, 동료 등)을 도운 경험이나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말씀해주세요(교사 3, 입학사정관 4, 교수 1). - 예시 질문: “어려운” “사람” 및 그 “사람”을 “직면”할 때 그들에 대한 “복지”나 “봉사”를 통해 돕는 것 혹은 이들에 대한 느낌, 생각 등을 말씀해주세요(교사 3, 4, 5, 7, 교수 2, 4, 입학사정관 3, 4). - 예시 질문: “나의 복지와 다른 사람의 복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교수 2)
자기 희생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 교과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자율활동” 및 기타 “활동”과 “봉사” 등 - 관련 예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 “희생”에 초점을 맞추어 “의무” 등을 “감내” 등을 활용한 질문, 다른 하위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경험”을 강조 (상대적으로 다양한 응용 용이) - 예시 질문: 학교, 학급, 동아리, 조별 등 활동에서 자신이 희생한 경험을 설명해주세요. (교사 3, 입학사정관 4, 5, 6, 교수 2, 6) - 예시 질문: “사회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인적 손실을 감내하겠는가?” (교수 2), “공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희생이나 손실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교사 3) - 예시 질문: “학급 경영에 있어서 본인이 숭선수범한 경험”을 말해주세요. (교사 6)

35) 예시 질문은 PSM 척도를 잘 반영한 문항 중 대표적인 문항 혹은 다수 전문가가 제시한 문항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면접에서 PSM 하위차원 중 “공공봉사 호감도”와 “공공가치 몰입”은 일부 측정문항의 다른 차원과 달리 난해하여 측정문항이 충분히 응용되지 못하고 원래 측정문항을 그대로 물어보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는 면접문항의 사전 유출은 물론 면접시간 한계로 인해 맥락상 다소 동떨어진 질문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측정문항을 개발 및 기존 문항 응용을 통해 맥락과 제한된 시간을 고려한 질문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로,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을 PSM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 중요성이 그 분량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주목해 볼 만하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담임교사에게 추가적인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며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에서 “service” 번역을 “봉사”라고 해서 봉사가 그 본연의 의미보다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되며(예를 들어 <그림 1, 2, 3, 4, 5, 7, 8>, <표 7, 8, 9, 10, 11, 13, 14, 17, 18>), 이에 대하여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³⁷⁾ 공직에 가려고 “봉사”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개인 봉사활동은 기재되지만 대입전형 자료에 반영되지 않으며,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 실적만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봉사’(<표 3> 참고) 경험이 얼마나 PSM에 의미있는지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에 따른 차후 연구도 존재한다. PSM 문항을 학생부와 면접에 적용할 때 그 적용의 예를 보았지만, 아직도 모호한 점은 피할 수 없었다. 또한 학생부에 교사들이 학생의 내면적 가치나 헌신보다는 외면을 보고 기술한 행동을 서술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장이나 포장이 있을 수 있다. 학종과 텍스트 네트워크의 한계로 기록의 의미적 맥락이나 동기의 질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정교하게 학생부와 면접에서의 PSM 평가항목, 기준과 문항 등을 분명하고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입학사정관이나 교사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생들의 내면가치를 관찰하는

36) PSM의 측정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해당 측정 문항의 난해함 혹은 문항의 대표성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여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7) 현재 대다수의 학자는 각주 15에서 보듯이 PSM 번역으로 “공공봉사동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로 설문이 진행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일 수 있다. 하지만 봉사가 volunteering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봉사(奉仕)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써”이라고 정의한 것을 고려할 때, PSM 측정문항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奉仕)의 의미를 온전하게 표현한 것인지, ‘봉사’ 외에 더 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를 근거로 해의 학술 용어의 적절한 번역에 대한 논의, 재검토 및 재정립도 필요하다.

기회를 가지거나, 보다 심도있게 관찰하여 기술하는 방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PSM 선발에 대한 평가를 루브릭(Rubric) 기반 PSM 평가 모형 및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량 및 정성적 평가가 융합된 평가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에게 PSM을 위해 봐야 할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지만, 평가자 간 학생부와 면접에서 주관적 평가편차가 크지 않고 일관적인 평가를 하기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평가자를 모의 시뮬레이션하고, 교육하거나 표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자들의 해석 편차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평가를 더욱 정밀히 정량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서 학생부와 면접에서 어떻게 PSM의 각 측면을 얼마나 반영할지도 차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가 학생의 선발 측면을 보았다면, 차후에는 행정학과와 처리 및 산출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운영 내용과 방법에 따른 졸업생 배출과 연계하여 행정학 교육에서 어떻게 PSM을 교육(김상묵, 2013)하고 증진시킬지 등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소 전문가의 수는 충족(각주 17 참고)한 설문이기는 하였으나 더 많은 설문 대상을 모집하여 차후 추가적인 연구를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양적연구 측면을 강화하여 설문 대상자를 다수의 교수, 입학사정관, 교사 등 수백 명의 인원에게 정량화된 설문을 받아 학종에서의 PSM을 삼각검증(triangulation)(Cho, 2024)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PSM 문항을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척도(김상묵, 2018)에 기반하여 4가지 차원에 기반하여 측정하였지만, 3가지 차원 등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PSM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하나의 차별이고, 면접 시간이 짧아지고 폐지되는 상황과 학생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PSM은 공무원의 자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아닌 하나의 예시이다. 높은 PSM과 공직 선택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Lee & Choi, 2016; 김상묵, 2018), 학업역량 및 성취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입직(入職) 전 PSM이 높지 않아도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높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고, 행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변경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학의 학문적 다양성과 진로 다양성을 축소시켜 우수 고등학생 인재의 유입을 제한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PSM 높은 사람이 공공부문에 일할 가능성은 높이는 것을 생각해서 PSM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연구(Wright & Christensen, 2010)하고 보조적 평가 기준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무 및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실무적으로 학종의 주요 문제인 평가의 모호성 해소는 물론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행정학 교육에서 학생 선발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학종에서 학생부 및 면접 등을 볼 때, 평가자들이 PSM을 통하여 지원자들의 적합한 역량을 변별할 수 있도록 선발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완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PSM의 연구영역을 확장하였다. PSM 연구가 PSM 측정과 조

직구성원의 성과 및 효율성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고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김윤희, 2018) 국한된 연구에서 벗어났다. 또한 그동안 PSM에서 부족한 질적 연구방법(김삼목, 2018)도 보완하였다. 장기적으로 공공영역 학생 선발과 인력 수급은 물론 민간 사기업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PSM이 다른 학과는 물론 공공과 민간 부문에 모두 존재한다라는 논의의 확장선으로 본 연구는 차후 행정학, 교육학, 인사관리 및 행정 등에서 평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 분야는 물론 다른 학과 및 영역(사기업에서 공공부문과 관련 영역, 교대와 사범대를 포함한 교육학, 판검사와 법조인을 위한 법학, 정치가를 위한 정치학 등 외에도 경제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및 의학, 간호학 등)에서 전공별 주요 이론 및 원리에 따라 학생선발을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의 PSM 연구가 교육열기가 높은 한국의 교육과 융합되어 한국화된 PSM의 영역이 교육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에서 주로 연구되는 PSM의 교육관련 분야 연구가 이 연구를 디딤돌 삼아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대학생 및 공공부문 선발에 적용, 발전, 확장, 전파되어 한국에서 토착화된 행정연구가 세계화되는 촉매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강경래. (2022).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2022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계명대.
- 강인재. (2020). 행정학 교과목에 대한 실천적 논의, 왜 필요한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515-522.
- 고길근·박치성. (2010). 대학생의 직업선택동기와 공직동기. 「행정논총」, 48(2), 339-368.
- 교육부. (2019).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7911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33&s=moe&m=020402&opType=N> (2025년 1월 18일 접근).
- 교육부. (202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https://www.sen.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2095930&q_fileId=e6090e47-9453-40f3-90b9-cdea9a8e9da5 (2025년 8월 30일 접근).
- 권오현. (2022). 입학사정관 책무성 및 직무윤리. 2022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계명대.
- 권오현. (2025). 대학입학제도 및 정책의 이해.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권해수. (2009). 한국 행정학의 학문후속세대 교육의 위기 구조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43(1): 299-320.
- 김광웅. (1979). 행정학의 성격과 범위. 「한국행정학보」, 13: 217-234.

- 김민경. (2022). 학생부교과전형의 이해. 2022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계명대.
- 김민경. (2025).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서류평가).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김민자. (202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사범계열.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김서용. (2009). 공직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47(2): 181-209.
- 김서용·조성수·박병주. (2010). 공직동기(PSM)의 선행요인: 사회화 요인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1): 147-177.
- 김상묵. (2013). 「한국인의 공공봉사동기: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서울: 집문당.
- 김상묵. (2018). 공공봉사동기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정부학연구」, 24(3): 43-112.
- 김상묵. (2021). 중등교육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5(4): 1-25.
- 김상묵. (2023). 공공봉사동기 연구. 「학문의 길」. (pp. 82-107). 윤성사.
- 김상묵. (2024).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한국공공관리학보」, 38(1): 1-26.
- 김상묵·노종호. (2024). 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전공-직무일치 취업 및 직장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3(3): 65-96.
- 김영필. (2024). 학생부종합전형, 올해부터 세 가지 유형으로 다양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32046035> (2025년 1월 8일 접근).
- 김윤희. (2018). 재직기간과 공공서비스동기: 입직경로의 조절효과. 「한국행정학보」, 52(2): 165-198.
- 김주환. (2001). 한국의 행정학 교육수요에 관한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3): 1-15.
- 김준엽·박소영·신혜숙·민병철. (2013). 대학에서의 학습 및 활동을 중심으로 본 입학사정관제 성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29-50.
- 김태우·조기웅. (2021). 일과 삶의 균형, 경력개발지원, 연고(緣故)가 공무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2(4): 169-201.
- 김태호·노종호. (2010). 공공봉사동기가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8(3), 143-168.
- 김판석. (1995). 미국의 행정학 교육동향 분석 및 한국행정학 교육의 정책적 함의: 행정학 개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1507-1533.
- 문다애. (2025). '학생부 복사·붙여넣기' 한 교사...징계는 '아직' <https://www.youtube.com/watch?v=b9y-DTcSRrM> (2025년 1월 19일 접근).
- 문승관. (2022). 학생부종합전형 무엇인가요...학생부종합전형의 역사 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32292184&mediaCodeNo=257> (2025년 1월 8일 접근).
- 박수경·문국경. (2023). 공공봉사동기(PSM)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번트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5(3): 229-254.
- 박성미. (2011). 직업능력의 요소로서 핵심역량 분석. 「직업교육연구」, 30(3): 327-351.

- 박정호. (2015). 공직가치 내재화에 관한 이론적 소고: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 인사행정학회보』, 14(3): 191-217.
- 박정호. (2017). 윤리적 리더십과 공공봉사동기(PSM)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201-227.
- 박종민. (2012). 행정학: 미국행정학인가 한국행정학인가. 『정부학연구』, 18(2): 131-147.
- 박찬호·이진희. (2018).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및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 및 공정성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과학연구』, 37(2): 151-193.
- 박천기. (202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수학)의 이해.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박치성·이준석. (2017).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대규모 텍스트의 자료정리(Data Cleaning) 방법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7(4): 35-68.
- 박치성·정지원. (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19(2): 73-108.
- 박하나·조현희·김종훈·정수정·엄수정. (2021).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시민교육연구』, 53(2): 1-29.
- 복장희. (202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학)의 이해.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사이람. (2017). 「Netminer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교육」. 사이람(Cyram).
- 성현석. (2006). 2008년도 입시, 대학별고사 축소-학생부 반영비율 확대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79857#0DKW> (2025년 3월 2일 접근).
- 송현섭. (2022).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성 및 해석. 2022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계명대.
- 송형석. (2006). 2008년부터 내신 50%이상 반영한다는데...실질 반영비율은 큰 변화 없을듯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06050339041> (2025년 3월 2일 접근).
- 손호성·배광빈. (2019).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와 양적 방법론 교육과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3(4): 89-117.
- 신석. (2022). 수능위주전형의 이해. 2022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계명대.
- 안선희. (2024). 무전공 입학, 약일까 독일까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1824> (2025년 1월 8일 접근).
- 안정습. (2020). 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직업가치 다양성에 관한 연구: Q방법론을 통한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준희. (2018). 텍스트 두껍게 읽기: 기존 텍스트 분석의 한계와 질적인 분석을 위한 제언. KIPA 조사포럼, 28(6월, Summer): 42-45.
- 오석홍. (2016).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유승현·김준성. (2023).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채용유형에 따른 목표모호성,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20(2): 79-120.

- 유하라. (2023).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1(6): 151-183.
- 윤상형. (2022). 입시 환경과 대입 제도의 변화 II. 입학사정관 전문역량 강화 교육. 송실대.
- 윤중호. (2025a).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성과 기재.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윤중호. (2025b).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사례.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윤재풍. (1987). 한국의 행정학 교육-대학 행정학과 학사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1(1): 55-99.
- 이경희. (2010). 고교성적, 수능성적, 대학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313-342.
- 이미령. (2023). 학폭 징계도 학생부도 '수능 100%' 전형엔 유명무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079100004> (2025년 3월 2일 접근).
- 이병량. (2010). 행정학의 위기와 행정학 교육: 한국 행정학 교육의 실용성에 관하여. 「행정논총」, 48(2): 169-188.
- 이상지. (2025a) 대학입학전형 공정성(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이상지. (2025b) 대학입학전형 공정성(평가과정의 공공성 강화).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이선행. (2023). 2024학년도 이공계 특성화대학 수시, 이렇게 선발한다 http://m.edu.donga.com/news/view.php?at_no=20230611154814525925 (2025년 3월 2일 접근).
- 이수영·최낙범. (2016).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PSM) 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직무특성의 조절 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5(1): 169-200.
- 이슬기·김래영·유연주. (2024). 중· 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및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종단적인 변화에 따른 집단 분류 및 대학교 시기의 핵심역량에 대한 영향 분석. 「교육학연구」, 62(2): 165-194.
- 이정림·방유리나·차정민·강설화·김태형·정혜리. (2021).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 이정현. (2023).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입학사정관 전문역량 강화 교육. 송실대.
- 이재원. (2025a).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계열별 공통.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이재원. (2025b).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인문계열 자연계열.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이천중. (2019). 되돌아보는 대입 변천사... 본고사·학력고사·수능·학종 세대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114503081> (2025년 3월 2일 접근).
- 이혜윤. (20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 (PSM) 와 직무동기요인이 직무만족

-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기관유형에 따른 조절효과와 공정성인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2): 349-388.
-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2024). 2026학년도 대입전형 미리보기 PREVIEW. 인천광역시 교육청.
- 임진택. (202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마련 및 적용 1 입학사정관 전문역량 강화 교육. 송실대.
- 임진택·이정림·방유리나·이승아·조민경·박정선·안미연·차정민·장준호·김창민·이수영. (2022).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서울: 경희대학교 입학처 입학전형연구센터.
- 장교식·김경숙·이정림·김 현·임진택·홍정일·이미경·김응빈·박정선·백광진·차정민·나민구·이석록. (2018).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서울: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 장승일. (2022).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사례 및 해석. 입학사정관 전문역량 강화 교육. 송실대.
- 전대성. (2025). PSM 이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차이와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6(2): 39-61.
- 전대성·이수영. (2015). 도구변수 분석을 통한 공공봉사동기(PSM)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4(3): 317-346.
- 정명채. (2022). 대학입학제도 및 정책의 이해. 2022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계명대.
- 정민승·나주예. (2022). 기자 공무원 조기퇴직자 10명 중 9명은 '8·9급'... 공직사회에 무슨 일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113180003430> (2025년 3월 1일 접근).
- 정선영·박진희·백선희·지성애·최성애. (2022). 텔파이 기법을 이용한 영유아 돌봄· 교육기관 감염병 대응 권고안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 『보건사회연구』, 42(4): 62-78.
- 정성호. (2006). 「20대의 정체성」. 살림출판사.
- 정연택·이주실. (2008). 사회적 유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학 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23: 55-75.
- 정정길·이달곤. (2000). 전환기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8(2): 79-100.
- 조경호. (2005). 행정학과 학부 교과과정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 143-158.
- 조기웅. (2020). 행정학 교육에서 행정(학) 역사의 확장과 공백의 메움. 『행정논총』, 58 (4): 63-106.
- 제갈욱·최근열·김태영. (2001). 행정학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17-629.
- 차정민. (2022).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계자 교육.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22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계명대.
- 최낙혁·조기웅·황은진·정지용. (2024). 학생정신건강 증진 전문기관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직학회.
- 최상은. (2022).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계자 교육, 2022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계명대.
- 최상은. (2024). 2024년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1,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최상은. (202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예체능. 2025년 대입전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 최성락·이혜영. (2009). 한국 행정학 교육의 변화: 행정학 개론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4): 163-185.
- 최영출·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분석.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최예나·이문수. (2024). 내년 대학 신입생... 4명중 1명 '무전공'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29/125163127/1> (2025년 1월 8일 접근).
- 피옥희. (2021). 건국대·중앙대·한양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세특 중심으로)' <https://www.localnaeil.com/News/View/645868?pageidx=1&searchText=%23%ED%95%99%EC%83%9D%EB%B6%80&tblPNum=1> (2025년 3월 2일 접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함은혜·백선희. (2016). 고등학생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761-783.
- 허정은·박창언. (2019).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 미디어 논문지」, 9(9): 353-361.
- Anderfuhren-Biget, S. (2012). Profiles of Public Service-Motivated Civil Servants: Evidence from a Multicultural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5(1): 5-18.
- Bozeman, B., & Su, X. (2015). Public Service Motivation Concepts and Theory: A Critiqu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5): 700-710.
- Bright, L. (2005). Public Employees with High Level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Who are They, Where are They, and What do They Want?.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5(2): 138-154.
- Bromberg, D. E., & Charbonneau, É. (2020). Public Service Motivation, Personality, and the Hiring Decisions of Public Managers: An Experimental Study.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9(2): 193-217.
- Camilleri, E. (2007). Antecedents Affect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Personnel Review* 36(3): 356-77.
- Chen, C. A., Chen, D. Y., Liao, Z. P., & Kuo, M. F. (2020). Winnowing out High-PSM Candidates: The Adverse Selection Effect of Competitive Public Service Exams.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23(4): 443-464.
- Christensen, R. K., & Wright, B. E. (2011). The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Job Choice Decisions: Disentangling the Contributions of Person-Organization Fit and Person-Job Fi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4): 723-743.
- Cho, K. W. (2024). Home Team Effect and Opinion Network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 Mixed-Method Study of the Influence of Symbol and Feedback on Liberal versus Conservative Newspapers' Negative Opinion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1): 1-21.

- Cho, K. W., & Park, D. (2023). Emergency Management Policy Issues during and after COVID-19: Focusing on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22(1): 49-81.
- Einolf, C. (2016). Millennial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Findings from a Survey of Master's Degree Students.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40(3): 429-457.
- Holt, S. B. (2018a). For Those Who Care: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Sector Selec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8(3): 457-471.
- Holt, S. B. (2018b). The Influence of High Schools on Develop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22(1): 127-175.
- Huang, W. L. (2022). Changes in Public Service Motivation: Can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Help Cultivate It?.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88(4): 1176-1191.
- Huang, W. L., Dong, H. K., & Colak, A. (2025). Revisiting PSM-Attraction Propos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Civil Service Recruitment Methods. *行政暨政策學報*, 80:107-138.
- Kim, S. (2017). Developing an Item Pool and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for Measu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2(3): 231-244.
- Kim, S. (2018). Public Service Motivation,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in the Korean Public Sector.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41(1): 130-151.
- Kim, S. (2021). Educ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A Longitudinal Study of High School Graduat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1(2): 260-272.
- Kim, T., Kim, K., & Kim, S. (2022). Institutional Correlate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Family, Religion, and High School Educ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4(3): 214-233.
- Kim, T., Kim, K., & Kim, S. (2023). Undergraduate Educ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A Quasi-Experiment with the Intervention of an Introductory Course. *Teaching Public Administration*, 41(2): 170-189.
- Kjeldsen, A. M. (2012). Vocational Study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Disentangling the Socializing Effects of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5(4): 500-524.
- Lee, G., & Choi, D. L. (2016). Does Public Service Motivation Influence the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Work in the Public Sector? Evidence from Korea.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6(2): 145-163.
- Lewis, S. C., Zamith, R., & Hermida, A. (2013). Content Analysis in an Era of Big Data: A Hybrid Approach to Computational and Manual Method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7(1): 34-52.
- Moynihan, D. P., & Pandey, S. K. (2007). The Role of Organizations in Fostering Public Service

-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1): 40-53.
- Noe, R.A., Hollenbeck, J.R., Gerhart, B., & Wright, P.M. (2010). *Human Resource Management: Gaining a Competitive Advantage*, 7th Ed. Boston, MA: Irwin McGraw-Hill.
- Perry, J. L. (1997). Anteced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7(2): 181-197.
- Perry, J. L. (2000). Bringing Society in: Toward a Theory of Public-Service Motiv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2): 471-488.
- Perry, J. L., & Wise, L.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373.
- Seider, S. C., Rabinowicz, S. A., & Gillmor, S. C. (2011). The Impact of Philosophy and Theology Service-Learning Experiences upon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of Participat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2(5), 597-628.
- Skulmoski G. J., Harman F. T., & Krahn, J. (2007). The Delphi Method for Graduate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6(1): 1-21.
- Tao, L., & Wen, B. (2023). The Bedrock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Family and School Institutions.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16(3): 350-379.
- Vandenabeele, W. (2011). Who Wants to Deliver Public Service? Do Institutional Anteced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rovide an Answer?.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1(1), 87-107.
- Wright, B. E., & Christensen, R. K. (2010). Public Service Motivation: A Test of the Job Attraction-Selection-Attrition Model.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3(2): 155-176.
- Zhang, H., Zhang, Q., Huang, G., Ke, J., Zhao, N., Huang, W., & Zhang, J. (2022). Analysis of Evaluation Dimension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s—Qualitative Study Based on Grounded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2): 15084.

Appendix

〈Appendix 표 1〉 표준 대입전형 체계(차정민, 2022; 최상은, 2025; 김민경, 2022;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2024; 이상지, 2025a에서 수정 및 보완)

전형유형			주요전형요소
수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 활용이 가능하다.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현 이공계 특성화 대학 제외 폐지됨)], 면접 등을 가지고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김민경, 2022). [예: 학생부 100% 학종(최상은, 2025),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학종, 면접을 반영하는 학종 등(김영필, 2024)].
		학생부 위주	교과 성적 중심(김민경, 2022)으로 선발하여, 학종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중심의 정량적인 평가 중심이다(최상은, 2022). 평균 석차등급을 활용하고, 계열별 반영 교과 및 과목 수는 물론 대학별로 교과성적의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다(김민경, 2022). 간혹 서류를 보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과 100%로 진행한다(김민경, 2022). 교과성적 100% 외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간 편차를 고려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거나(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2024), 면접, 서류 등을 보는 곳도 있다(최상은, 2025). 한편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정치인 자녀의 서울대 입학 문제가 제기되고(이미령, 2023)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줄어들자, 학생부 교과에서도 비교과, 면접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2024).
	논술위주		논술 등으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 실기 및 면접을 보는 곳도 있다(최상은, 2025).
	실기위주		실기 등(특기 등 기타 여러가지 증빙 자료 활용이 가능)으로 선발, 특기자 전형이 포함되지만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이 제한적이며, 모집 규모 축소를 권장, 외부의 여러 실적보다는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
정시 38)	수능위주		수능 위주로 선발하지만, 학생부, 면접, 실기를 실시하기도 한다(이상지, 2025a; 최상은, 2025).
	실기위주		실기 등(특기 등 관련 증빙자료 활용 가능)

38) 정시는 주로 수능(혹은 예체능 계열과 같은 경우는 실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석, 2022). 이러한 추세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적성고사도 2021년 이전에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최소화할을 유도하다 2022년 이후 폐지하고 있는 추세였다(강경래, 2022). 한편으로 2020년 이후 구술고사는 지속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되 최소화를 유도하는 한편, 논술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강경래, 2022).

〈Appendix 표 2〉 대입전형별 특징(차정민, 2022)

전형	학생부 교과성적	학생부 교과연계활동	수능성적	진로 희망연계	평가의 객관성	평가자료의 누적성	합격 예측성
학생부종합전형	○	◎	×	◎	△	◎	△
학생부교과전형	◎	×	○	×	◎	◎	◎
논술전형	△	×	○	×	○	△	×
수능일반전형	×	×	◎	×	◎	△	○

범례: ◎: 높음, ○: 있음, △: 미흡, ×: 거의 없음

〈Appendix 표 3〉 선행연구 제시 “PSM” 영향 요인과 본연구에서 살펴본 결과³⁹⁾

	분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고교교육 등에서 PSM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부차(副次)적으로 살펴본 학종으로 볼 수 있는 PSM 영향 요인	비고
PSM 영향 요인	개인적 요인	-부모, 종교, 성별, 소득, 전문직 경험, 연령, 종교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자선단체 기부 및 여러 사회기관에 참여한 친사회적 경험	-문헌연구 내용이 학종 반영에 한계[입시제도 규정상, 학생부 상의 한계(개인정보 제한, 교외활동 기재 금지 등)]	차후 연구 필요
	학교/기타 활동	-리더십 관련 경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 친구들과 협력하는 관계, 멘토링, 사회 교과목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비교과활동, 협동학습,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문헌연구 내용이 학종 서류(학생부) 및 면접 반영되나 정도 차이가 있음	문헌연구와 차이 크지 않음
	교사/학교 요인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관계 및 교사의 열의, 학교교육 만족도, 교사에 대한 지원	-서류(학생부)보다는 면접에서 반영 가능, 시간 제약으로 반영에 한계	면접 등으로 물을 수 있으나 명확히 알기 어려움 - 차후 연구 필요

39) 연구분석 외에 추가적으로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고교교육에서 대부분 요인을 학종에서 반영되어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 입시제도에 상반되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부모, 소득 등)도 있었다. 즉, 문헌연구에서도 언급된 학생선발에서 PSM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 관련 경험, 봉사활동에 만족,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및 비교과 활동, 친구와의 협력, 교사들의 평가, 사회 교과목에 대한 스스로 건설적인 평가 등이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사와의 학생과의 관계나 교사의 열의, 학교교육 만족도 등은 학생부보다는 면접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헌연구에서 보여준 부모, 종교, 소득, 기부 및 사회기관 참여 경험 등은 현재 학종으로 평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ppendix 표 4〉 학생부 기재 항목별 “일반적” 학생부 및 면접 확인 검토사항⁴⁰⁾(권오현, 2025; 김민경, 2025; 김민자, 2025; 이재원, 2025a, 2025b; 이상지, 2025b; 박천기, 2025; 윤종호, 2025a, 2025b; 최상은, 2025 등을 정리, 수정 및 보완)

항목	학생기본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	비교과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기본 검토 사항	-인적 사항 -출결 (인정, 미인정, 질병 관련 지각, 조퇴, 결과, 결석 등 여부) -그 외 기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일반선택, 자율과목, 전문교과 I, II, 진로선택), 공동교육과정,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공고, 자사고, 영재학교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상대/절대평가(이재원, 2025 a, 2025b; 최상은, 2025) -교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최상은, 2025), 수강자 수, 표준편차(윤종호, 2025a) 관련 교과 이수단위(김민자, 2025), 성취도(A, B, C, D, E)(최상은, 2025), 성취도별 분포비율 (윤종호, 2025b), 석차등급(1-9등급) (2028학년도 부터는 1-5 등급)(최상은, 202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활동 및 성장 기록)(최상은, 2025), 과목별 독서활동(윤종호, 2025b), 학교 자율과정(김민경, 2025) -그 외 기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최상은, 2025), 독서활동상황 (최상은, 2025), 동아리 활동 (이재원, 2025a) -그 외 기타	-수시로 관찰, 누가 기록한 학생의 특징 및 관련 종합의견 등(최상은, 2025) -그 외 기타	-대학의 인재상, 평가요소/기준 등 (이상지, 2025b), 전형별 특징 -그 외 기타
추가 검토 사항	-학교폭력조치사항 등 (1-9호) (최상은, 2025) -그 외 기타	-교과성적, 추이(박천기, 2025), 과목 선택 및 위계(박천기, 2025)기반 진로 연계성(이재원, 2025a) -전공관련 교과 성취도, 자발성, 적극성, 자기주도성, 지식확장 노력(박천기, 2025) -진로탐색 노력, 협업, 소통능력,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준수, 리더십 등(박천기, 2025), 2022 개정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권오현, 2025) 연결 역량(박천기, 2025), 매학기 성적 증가가 좋은 것 만은 아님(이재원, 2025a) -그 외 기타	-진로탐색 노력, 협업, 소통능력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등 (박천기, 2025) 다양한 활동을 통한 전공적 합성 이해 등 (이재원, 2025a) -그 외 기타	-교과 및 비교과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개인적 특성 등 (이재원, 2025a) 교사 추천서 역할(이재원, 2025b)로서 담임의 의견, 협업, 소통 능력,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등 (박천기, 2025) -그 외 기타	

40)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전공관련 교과선택 교과성적 및 추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외에도, 과목선택 및 위계, 진로탐색 노력 등의 학업 및 진로 역량은 물론 리더십, 성실성, 규칙 준수, 나눔, 배려, 협업, 소통능력, 인성 등 공동체역량 등(박천기, 2025) 외에 다양한 것을 봐야 한다.

〈Appendix 5〉

II. 설문 사항 - 아래 빈칸에 직접 작성해주세요.

설문 II-1] 공공봉사동기를 살펴보기 위한 학생부 및 면접에서 확인사항(Kim, 2017; 김상묵, 2018: 55)을 아래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참고 및 주의 사항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구성을 보고 오른쪽의 8가지 구성요소에서 어떤 면을 **“세부적”으로 봐야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면접: 면접시 어떠한 것을 물어봐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분량제한은 없습니다. 분량이 제한될 경우 편하게 한글 파일에 칸을 늘려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성

1. 인적, 학적 사항
2. 출결사항
3. 수상 경력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5.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6. 교과학습 발달사항
7. 독서활동 사항
8. 행동특성 및 종합

〈표 1〉 공공봉사동기를 살펴보기 위한 학생부 및 면접에서 확인사항 (Kim, 2017; 김상묵, 2018: 55)

차원	문항	학생부 및 서류 심사시	면접
공공봉사호감도 (attraction to policy making)	· 나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도록 돕고자 한다.		
	· 나에게 있어, 민주적 통치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 나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자 한다.		
공공가치 몰입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공무원들은 항상 자신의 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 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지지한다.		
	·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정심 (compassion)	· 나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동정이 간다.		
	· 나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화가 난다.		
	·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희생 (self-sacrifice)	·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 나 자신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 나는 사회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		
	· 비록 내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좋은 계획에 찬성한다.		

ABSTRACT

Complementing Comprehensive Student Record Screening in the Student Selection f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 Text Network-based Analysi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Review Points in Student Records and Interviews

Ki Woong Cho

The transition from content-based to capacity-based college student selectio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Student Record Screening, which was processed by admission officers and some of the department's professors while investigating various review points. However, studies on the selection of suitable students for specific departments are still lacking in academia. As a part of this initiative, this study suggested what to investigate in student records and conduct interviews to guide student selection for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uring the process of Comprehensive Student Records Screening based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In-depth open questionnaire data from teachers, admission officers, and professors were analyzed based on the text network. In addition to the applicability of PSM to student selection in the Comprehensive Student Record Screening, along with the capacity-based student selection and PSM's measurement, the results suggested checking the Creative-Experiential Activities in Extra-curricular Activity, Behavioral Characteristics & Comprehensive Opinion, Subject-Specific Descriptions of social studies, general group and volunteering activities in the students' records. Based on the student record, the interviewer could check and investigate the student records from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school and class activities and experience, along with the applicant's thoughts and knowledge of social stud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examples of interview questions for individual PSM dimensions (See Table 19), indicating future research,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mong many issues in student selection, this study applied PSM as a part of an supplementary example of student selection and expanded the area and method of PSM to select students suitable for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initiates studying student selection not only for public administration but also other majors based on the main principles of each department.

【Keywords: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early decision, comprehensive student record screening, student record, interview,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text network】